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82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3월 23일) 2024년 5월 1일 수요일

호스피스 기관 대폭 확대 '영적 돌봄' 제도화 준비를

복지부, 전국 호스피스전문기관 188개소→360개소로 확대 계획
2028년 2배 수준 인프라 구축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영적 돌봄' 프로그램 개발 담아
종교계 역할 커…인재양성 과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정부가 2028년까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과 더불어 '영적 돌봄'의 사실상 제도화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영적 돌봄을 주도해온 종교계 역할이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신교·천주교에 비해 호스피스·연명의료 영역에서 규모가 작은 불교계에는 인재양성이라는 과제가 시급해졌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제2차 종합계획(2024~2028)은 부족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라는 기조 아래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인식개선 및 확산을 목표로 설정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대가 눈에 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188곳에서 2028년 360곳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늘릴 계획이다. 입원형은 109곳, 가정형은 80곳, 자문형은 154곳으로 확충한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연명의료중단 가능 의료기관)를 지난해 기준 430개소에서 2028년 650개소로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은 100% 설치돼 있지만 그 외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 설치율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종교계 차원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합계획은 단연 '영적 돌봄'이다. 그동안 종교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제도권에서만큼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영적 돌봄이 이번 계획에 주요한 내용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외 동향을 살펴 전인적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선 '임상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자 대상 영적 진단도구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대만 역시 불교 관련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영국에선 호스피스 서비스를 통해 사별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라는 명목 아래 올해부터 임종기 환자와 가족을 위한 영적 돌봄 및 사별가족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영적 돌봄 프로그램의 표준화 매뉴얼 개발도 추진하는데, 성직자 중심의 제한적 서비스였던 영적 돌봄이 일반 호스피스 인력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는 셈이다. 결국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대와 영적 돌봄 프로그램 개발이 맞물리면서 더 많은 영적돌봄가와 전문성이 요구될 전망이다.

영적 돌봄이 그동안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종합계획 의결은 불교계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다만 호스피스 영역에서 이웃종교보다 후발주자로 시작한 불교계는 호스피스 관련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호스피스 전문기관인 정토마을 자재병원장 능행 스님은 〈현대불교〉에 "몇 년 전까지는 사람을 구하는 데 의료기술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환자가 고통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하는 영적 돌봄이 의료기술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의료계도 인정한다"며 "불교는 불자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우리만의 연구와 임상, 실습 등이 종단차원에서 이어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불교영적돌봄연구소장인 지인 스님은 오는 6월 '불교영적돌봄가협회'를 창립할 계획이다. 지인 스님은 "앞으로 영역이 점차 확대될 영적 돌봄 분야에서 불교가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인재양성과 체계적인 활동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영적돌봄가협회를 만들어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으로 불교계가 영적 돌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다"고 협회 창립 취지를 밝혔다.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와 명사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와 원로의원,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과 통도사 금강계단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계종 최고 법계, 대종사·명사 33명 품서

4월 25일, 통도사서 품서식
"정진과 교화덕행의 결정체"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명사에 비구스님 20명과 비구니스님 13명이 품서됐다.

조계종은 4월 25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대종사 명사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대종사와 명사 법계는 승랍 40년 이상의 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에게 수여되는 최고법계로 종단 내 수행력과 지도력을 상징한다. 품서식에는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를 비롯해 원로의원스님들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등이 동참했다.

품서식에서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은 고불문을 낭독하며 정진할 것을 발원했다. 이어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품서자를 대표해 동명 스님과 보선 스님이 부처님 전에 꽃을 올렸다. 법계증은 대종사 혜자 스님과 명사 성월 스님이, 가사는 대종사 영배 스님과 명사 혜안 스님이 대표로 받았다.

새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은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가 내린 25조 대가사를 이마 위로 정대하며 정대게송을 따라 염송했다. 지도자를 상징하는 불자 봉정과 자비를 상징하는 여의 증정도 이어졌다.

종정 성파 대종사는 "오늘 법계 품서에 임하시는 대종사·명사스님들께 사부대중과 더불어 찬탄하고 경하한다"며 "예부터 시행되어 온 법계는 출가 수행자의 수행력과 권위의 상징이자 종단 위계의 기본이다. 종단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와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는 일평생의 수행 정진과 교화덕행의 결정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대종사와 명사의 출현으로 종도들은 삼보에 대한 귀의가 간절해지고 여법하게 수행하는 청정승가가 유지되는 원력을 키우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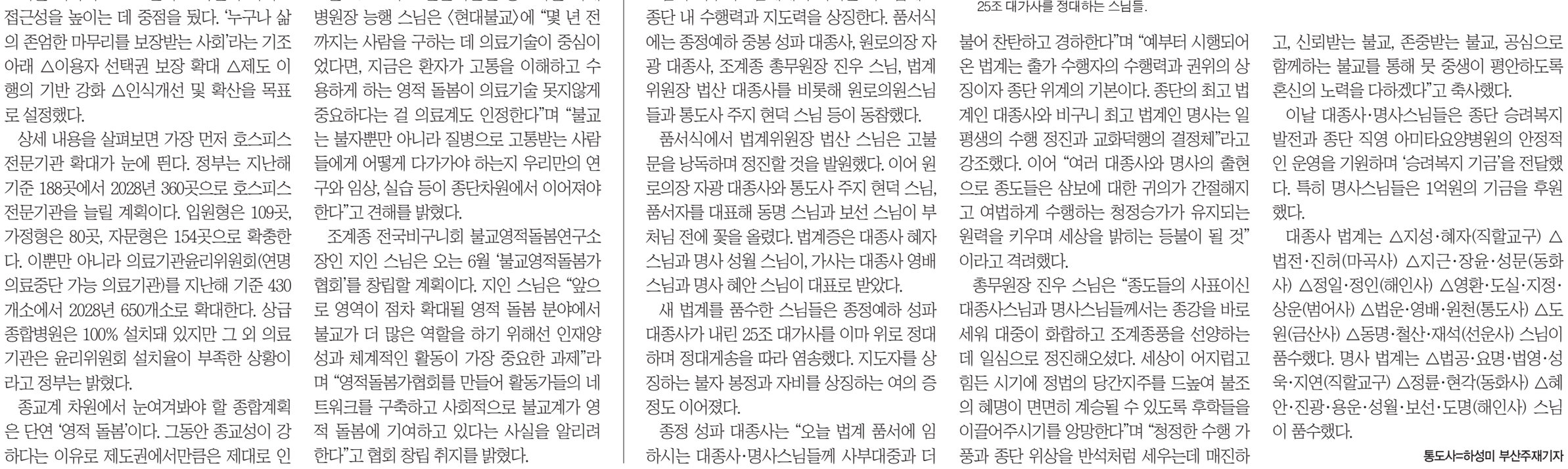
25조 대가사를 정대하는 스님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도들의 사표이신 대종사스님과 명사스님들께서는 종강을 바로 세워 대중이 화합하고 조계종풍을 선양하는 데 일심으로 정진해오셨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시기에 정법의 당간지주를 드높여 불조의 혜명이 면면히 계승될 수 있도록 후학들을 이끌어주시기를 양망한다"며 "청정한 수행 가풍과 종단 위상을 반석처럼 세우는데 매진하고,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공심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통해 뭇 중생이 평안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축사했다.

이날 대종사·명사스님들은 종단 승려복지 발전과 종단 직영 아미타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원하며 '승려복지 기금'을 전달했다. 특히 명사스님들은 1억원의 기금을 후원했다.

대종사 법계는 △지성·혜자(직할교구) △법전·진허(마곡사) △지근·장윤·성문(동화사) △정일·정인(해인사) △영환·도실·지정·상운(범어사) △법운·영배·원천(통도사) △도원(금산사) △동명·철산·재석(선운사) 스님이 품수했다. 명사 법계는 △법공·요명·법영·성욱·지연(직할교구) △정륜·현각(동화사) △혜안·진광·용운·성월·보선·도명(해인사) 스님이 품수했다.

통도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경찰불자들 "국민의 평온, 불교와 완성"

경찰청·서울경찰청 봉축법회
진우 스님, 본청서 소참법문
"일상 속 명상, 업무에 도움"
선업 스님은 서울청서 격려

윤호섭 · 김내영 기자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봉축대법회.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내빈이 경찰의 상징인 참수리 장엄등에 불을 밝혔다. 사진=이민우 기자



서울경찰청 봉축대법회. 포교원장 선업 스님과 내빈이 경찰 마스코트 포돌이 포순이 장엄등을 점등했다. 사진=김내영 기자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경찰불자들이 공정한 경찰로서 국가 치안을 유지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장으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조계종 포교원과 경찰전법단, 경찰청불교회는 4월 22일 경찰청 본청 1층 로비에서 '부처님오신날 경찰청 봉축 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경승단 총재)을 비롯해 경승실장 원명 스님(조계사 주지), 경승 남전 스님(조계종 포교부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승단 총재인 진우 스님은 준비된 원고 대신 축원과 소참법문으로 대중과 소통했다. 스님은 윤희근 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주요 간부들이 작성한 소원지에서 개인 이름을 낭독하며 축원을 올렸다.

진우 스님은 보살행의 기본인 육바라밀을 강조한 뒤 현재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보급과 일상생활 속 명상의 중요성을 설했다. 스님은 "하루 단 5분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반야심경을 외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수행이 경찰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여러분의 자비행과 보살행이 국민행복을 만들어간다는 확고한 신념과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승실장 원명 스님은 봉행사에서 "2600여 년 전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 고통 속에 헤매는 중생을 위해 불법의 수레바퀴를 굴려 거룩한 자비의 가르침을 주셨다"며 "여기 모인 경찰 가족 여러분도 세상의 어둠을 환히 밝히는 소임을 묵묵히 행하고 있는 자비의 실천자들"이라고 격려했다. 스님은 이어 "앞으로도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로 정진하면서 행복한 세상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가 실현되길 두 손 모아 발원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호국정신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 국난극복에 앞장선 불교에 감사를 표했다. 윤 청장은 "경찰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 현장에서부터 경찰청에 이르기까지 14만 경찰가족이 각자의 위치에서 굵은 땀을 흘리고 있다"며 "경찰이 지켜갈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불교가 추구하는 마음의 평화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의 완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또 "불교계와 경찰이 화합 소통해 한층 더 돈독해지고 공통의 목표로 정진한다면 부처님 법이 방방곡곡에 전해지고 모든 중생이 이고득락 행복에 이르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법회 대중은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는 호법신장이 되도록,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탐욕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지혜의 광명을 밝힐 것을 발원했다.

진우 스님과 윤희근 청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은 법회를 마친 뒤 경찰을 상징하는 참수리 장엄등에 불을 켜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했다. 경찰청 로비를 밝힌 참수리 장엄등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15일까지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청장 조지호)도 이튿날 청사 2층 대강당에서 포교원장 선업 스님과 조지호 청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선업 스님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안전한 일상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진정한 호법신장"이라며 "국민 평화를 수호하는 호법신장의 행원을 실천하는 경찰 여러분의 원력이 우리 모두를 아름다운 미래,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노고를 격려했다.

그간 경찰 포교에 진력해온 경승스님과 경찰불자들에게 감사장과 표창장도 수여됐다. 서울경찰 불교회 발전에 힘써온 이경진 서울경찰청 불교회 부회장이 총무원장 표창을, 박재서 부회장이 포교원장 표창을, 한철민·김덕숙 회원이 경승실장 표창을, 민승희 총무가 경찰전법단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또 황룡사 주지 진철 스님, 흥천사 주지 각밀 스님, 성각사(서초) 주지 도헌 스님, 정각사(성북) 총무 정수 스님, 정미자 불자가 포교 활동으로 경찰행정 발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조지호 청장은 "서울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두운 방에 등을 밝히면 암흑이 사라지듯, 보다 많은 경찰이 국민의 아픔 함께하고 사회 곳곳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사 주지선거 '단일화' 전통 깨고 3파전

화평 · 덕산 · 일원 스님 입후보…4월 30일 산중총회



화평 스님



덕산 스님



일원 스님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 선거가 오랜 '단일화' 전통을 깨고 경선에 들어간다.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지도력 아래 수십 년간 후보를 단일화해온 문중 화합의 세월은 대종사의 2021년 원적과 함께 역사로 남게 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4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408차 회의를 열고, 금산사 주지후보로 등록한 화평·덕산·일원 스님의 자격에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산사는 4월 30일 개최하는 주지후보자 선출 산중총회에서 대중의 표심으로 당선자를 가릴 전망이다.〈차주 상보〉

주지후보자로 출마한 세 스님은 모두 같은 태공문도회다. 월주 대종사가 금산사 조실로 있을 때보다 문중 화합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화평 스님과 일원 스님은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상좌이고, 덕산 스님은 월주 스님의 맏상좌인 도영 스님의 상좌로 월주 스님의 손상좌다. 다만 이와 별개로 세 후보가 갖춘 능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기호 1번 화평 스님은 1988년 수계한 이후 금산사 교무국장을 비롯해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을 역임하고, 16대부터 중앙종회의원을 세 차례 연임해 종단 내 입지가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호 2번 덕산 스님은 1979년 수계한 이후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과 제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금선암 주지로 사업 추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기호 3번 일원 스님은 1975년 수계한 이후 전국 제방선원에서 안거 수행하고 제17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 교구장으로서 4년간 안정적으로 교구를 이끌어왔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금산사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는 총 117명(비구91·비구니26)으로 확정됐다.

윤호섭 기자

명상의 가치, 3D 애니메이션으로 본다

조계종 미래본부, '천년을세우다' 미디어콘텐츠 제작

일상생활 속 명상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여주는 3D 애니메이션이 제작됐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천년을세우다' 미디어콘텐츠 3번째 작품 3D 애니메이션 '미소'를 제작했다"고 4월 22일 밝혔다. '미소'는 사발면을 먹고 싶은 김윤후(중2 여학생)가 엄마와 다툰 뒤 집 밖에 나와 학예사인 아빠 김석구를 따라 출장지에서 겪을 일화를 담고 있다. 산속 절터 발굴현장에서 아빠와 대화를 나누고 명상을 체험하며 가족의 화해를 담고 있는 이 애니메이션의 상영 길이는 7분 40초다. 제작은 ㈜안드로메다스튜디오가, 감독은 김정호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가 맡았다. 또 영화영상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조계종 포교원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혜장 스님이 제작 실무에 참여했다.



조계종 미래본부가 선보인 3D 애니메이션 '미소'의 한 장면. 아빠 김석구와 딸 김윤후가 명상을 체험하며 가족의 대화를 하는 모습.

윤호섭 기자

몸 · 마음 · 쉼 자살예방 프로그램 공모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사업의 일환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합니다.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 시 수상금 및 특전을 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 모 명 : '몸 · 마음 · 쉼' 자살예방 명상프로그램
■ 공모주제 : 명상을 활용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 프로그램 시행 대상 : 유가족, 자살시도자, 자살고위험군
■ 대 상 : 명상지도사, 자살예방 강사 및 교육생,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프로그램 설명서 1부 / 프로그램 워크북 1부
  –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www.kbcd.org) 공지사항에서 '문체부 자살예방프로그램 공모'에서 다운받아 사용
  – 프로그램 설명서 및 워크북은 제본(5부)하여 우편으로 발송
 * 사전사후 효과성 검증을 위한 측정도구 반드시 제출
■ 공모기간 : 2024년 4월 15일(월) ~ 5월 24일(금)
■ 접수방법
 * 원본서류는 우편, 파일은 이메일로 모두 제출
 * (우편주소) (02842) 서울시 성북구 개운사길59, 1층. 불교상담개발원 공모 담당자 앞
 * (이메일주소) jabi0001@naver.com
 * 우편물은 종료일 우편소인 날짜까지 한하며,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 불교상담개발원 02-737-7378
■ 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수상

구 분	수 상 금	선 정
대상	2,000,000원	1개
최우수상	1,000,000원	1개

■ 선정발표 : 2024년 5월 31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 심사 및 결과 발표 시기는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 선정 프로그램 특전
 *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전문가의 자문, 강사비 등 운영비 지원
 * 〈몸 · 마음 · 쉼 자살예방 명상프로그램〉 워크북 제작 및 배포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과 공동 사업 전개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나는 가전연” 불교식 MBTI에 2030 관심 ‘UP’

〈불교 에니어그램 ‘부처님 마음, 내 마음’〉

보급 한 달 이용자 통계 분석
2030세대가 전체 57% 차지해
남성보다 여성 이용자 압도적
전 연령서 ‘가전연’ 유형 1위
“템플스테이 콘텐츠 개발 추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이 선보인 불교 에니어그램이 2030세대의 또 다른 트렌드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성격유형 검사 링크가 공개된 지 채 한 달이 안 된 현재, 입소문을 타고 2030세대의 참여율이 급상승하는 등 젊은 불자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불교 에니어그램의 참여 연령 가운데 30대가 1위를, 40대에 이어 20대가 3위를 차지했고, 전체 비율의 절반 이상(57%)이 2030세대에 집중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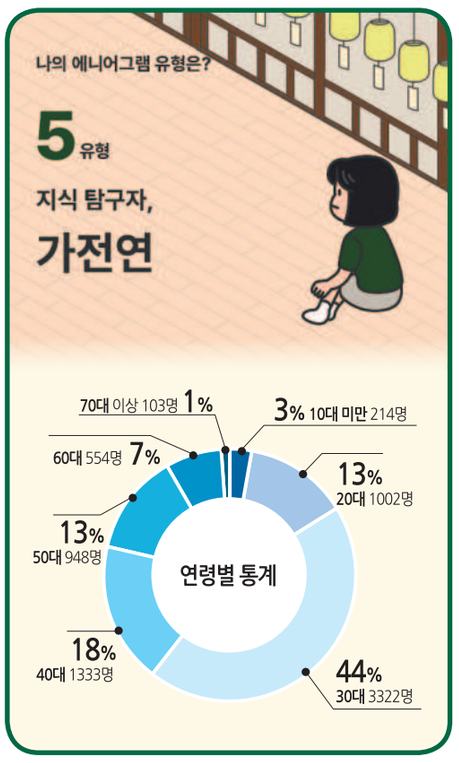
본지는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불교 에니어그램 ‘부처님 마음, 내 마음’ 성격유형 온라인 검사에 대한 연령·성별·날짜별 통계와 유형을 조계종 포교원을 통해 확인했다. 불교 에니어그램은 45개의 불교적인 질문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문항을 선택해 성향·성격을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검사다. 에니어그램은 MZ세대 사이에서 MBTI 열풍을 이은 심리검사로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총 참여자 7476명 중 30대는 3322명이다. 전체 참여자 중 44%의 비율로, 전 연령대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뒤를 이어 40대가 18%(1333명), 20대가 13%(1002명), 50대가 13%(948명), 60대가 7%(554명), 10대 미만이 3%(214명), 70대 이상이 1%(103명)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불교 에니어그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큰 관심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76%(5676명)인 반면 남성은 24%(1800명)에 그쳤다.

불교 에니어그램은 부처님 10대 제자를 대표 인물로 설정해 각 유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검사 결과에는 각 유형이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언, 추천 신행, 부처님 말씀 등이 담겨 스스로 삶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 연령층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유형은 ‘5-지식 탐구자, 가전연’이다. 남자 608명, 여자 1760명 등 총 2368명이 이 유형에 해당했다. 다만 한 사람이 하나의 유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전적 특성 및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복수 유형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율이 나온 ‘가전연’ 유형은 지식 쌓는 것을 좋아하고 분석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며, 객관적이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유지한다고 알려졌다. 또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5유형에게 적합한 신행 방법은 ‘사경’이다. 한 글자, 한 획을 직접 쓰면서 공허함을 채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

9번 유형인 ‘편안한 중재자 사리불(2251명)’과 6번 유형 ‘성실한 친구, 가섭(1705명)’이 근소한 차이로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3-성공을 부르는 달변가, 부루나(1692명)’ 유형 △‘2-사랑을 담은 봉사자, 아난(1263명)’ 유형 △‘7-호기심 가득한 소년, 라훌라(1154명)’ 유형 △‘1-몸소 실행하는 실천가, 우바리(1152명)’ 유형 △‘4-컬러를 입히는 멋쟁이, 목건련(861명)’ 유형 △‘8-힘을 중시하는 도전자, 수보리(811명)’ 유형 순으로 뒤를 이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불교 에니어그램은 감정, 생각, 욕구를 바탕으로 성격유형을 나눠 불교적으로 활용하기 가장 적합하고, 심층 심리를 다루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에니어그램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아동용·청소년용 등 계층 따른 맞춤 설문지도 개발해 젊은 층 포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며 “데이터 수집과 이를 통한 개선을 거친 후에는 템플스테이와 접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에니어그램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포대 불교동아리 ‘메따’ 추가 창단

봉선사, 청년법회서 지원금 후원
교구 소속 말사들도 기금 전달해

올해에만 4개 대학에 5개 불교동아리 창단을 이끌며 대학생 전법에 매진하고 있는 봉선사가 김포대 불교동아리 창단이라는 결실을 더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는 4월 20일 경내 큰법당 앞마당에서 ‘상월결사 청년대학생 연합법회’를 봉행하고, 최근에 새로 창단한 김포대 불교동아리를 소개했다.〈사진〉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씨에도 법회에는 기존에 창단을 마친 경동대·서정대·경복대·신한대 불교동아리 회원들과 광동학원 산하학교 학생들, 수미산원정대 출신 불자들이 함께했다.

김포시 월곶면에 위치한 사립전문대학 김포대에는 4월 11일 ‘메타’라는 불교동아리가 탄생했다. 당초 불교동아리 창단 계획은 없었지만 일부 학생들이 사찰에서도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교수진에 알리면서 봉선사와의 교류가 시작됐다.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과 김포대 불교동아리 임원진.

김포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로는 보원 스님이 임명됐다. 전주희 회장과 장형신 부회장, 박우송 총무도 임원진으로서 임명장을 받았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교, 직장인 청년회 등 10~30대 다양한 청년들이 봉선사와 함께하고 있다”며 “대학생청년 전법도량으로서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주희 김포대 불교동아리 회장은 “불교동아리 회장을 맡은 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남양주=윤호섭 기자

난치병 어린이 쾌유 발원 108배

4월 24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주최
난치병어린이 치료비 모연행사 진행

“우리 다운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조계종과 수많은 불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와 가족을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한 한다운 군의 아버지 한상귀 씨는 울먹이면서 거듭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불교계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올해부터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한다운 군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중증장애를 가진 몸으로 난치병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한상귀 씨에게 불교계의 지원은 큰 힘이 됐다.

이처럼 난치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불교계가 마음을 모았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재단)은 4월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4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모금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재단 이사장 진우 스님은 “최근 자비나눔 방문으로 병마를 이겨내는 천진불들을 만날 때마다 대견하기도 했고 감당해야 하는 짐이 너무 큰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라며 “난치병으로 힘들어하는 어린이 부처님들이 사부대중의 간절한 발원으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이후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와 자비나눔문화 확산을 발원하는 108배가 이어졌다. 500여 대중은 ‘나를 깨우는 108배’에 맞춰 정성스레 절을 했다. 제각기 속도는 달랐지만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마음은 똑같았다. 참가자들은 진심 어린 108배를 총 세 번 반복했고 이후 행사는 사홍서원과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다. 이민우 기자



“환경5계 실천하는 녹색불자 됩시다”

불교기후행동, 지구의날 맞아
녹색불자 실천 캠페인 입재식

제54회 지구의날을 맞아 사부대중이 과거 행한 환경파괴행동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자비심을 등불 삼아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했다.

불교기후행동(상임대표 일문 스님)은 4월 22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제3회 녹색불자 실천 캠페인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입재식에서 환경5계를 실천하는 녹색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 사부대중은 직접 자연을 그려 넣은 지구등을 들고 사회를 향해 자연보호의 메시지를 전하며 인사동을 행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도심 스님, 불교기후행동 상임대표 일문 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조계사 부주지 탄보 스님,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주현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캠페인의 시작은 ‘지구등 그려넣기’ 체험부스가 알렸다. 불교기후행동 활동가들은 직접 만든 지구등을 놓고 붓으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지구를 그려 넣었다. 활동가들이 그린 지구등이 하나둘 완성되자 지나가던 불자들이 조금씩 체험부스로 몰려들어 붓을 집었다.

한진숙 보살은 “인간의 자연파괴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구등에 그림을 그리고 ‘지구야 고맙다’는 메시지를 적었다”고 말했다.

불교기후행동을 격려하기 위해 조계사를 찾은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도 지구등 그려 넣기에 동참했다.

입재식 이후 사부대중들은 자신이 그려 넣은 지구등을 들고 조계사 일주문을 나서 인사동을 행진했다. 풍물패의 흥겨운 국악과 지구장엄등이 행렬에 앞장섰고 그 뒤를 따르는 사부대중들은 자연환경을 지키고 우리를 지키자는 메시지를 사회에 전했다.

주현우 대불련 회장은 “대학생불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만큼 환경을 생각하고 지키는 것은 불자로서 당연한 행동”이라며 “오늘 같은 날 함께 지구등을 그려 넣고 녹색불자실천 발원을 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민우 기자



조계사, 보살계 수계법회 "지계·정진" 다짐

4월 21일, 1700명 수계제자 동참
전계대화상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
"육바라밀 실천해 괴로움 벗어나길"
과오 참회 기원하며 꽃비 내리기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증명법사스님들은 법회 동참자들에게 꽃비를 뿌리며 과오를 참회하고 청정하게 거듭날 것을 기원했다.

"불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 몸으로 부처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마흔여덟 가지 경구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사십이위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까?"

"예, 잘 지키겠습니다."

계를 받아 지키겠다는 불자들의 목소리가 조계사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청정한 삶을 통해 진정한 부처님 제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조계사는 4월 21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금강계단 대승 원력 보살계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조계사 보살계 대법회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계대화상을,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이 갈마아사리를, 조계사 부주지 탄보 스님이 교육아사리를 맡았으며, 조계사 어린이회와 중고학생회를 비롯한 17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대승보살의 수지 계율인 보살계를 수지하고 끝없는 정진을 다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문에서 수계제자들에게 '계'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했다. 진우 스님은 "수계는 진정으로 불자가 되겠다는 서원이다. 계를 지키지 않으면 절대 해탈할 수 없다"며 "계를 어기면 인과가 따르고, 괴로움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음에 분별이 있으면 계를 범하게 된다. 고락이라는 두 가지 마음은 항상 낮과 밤처럼 같이한다. 극락과 지옥 육도윤회를 하면 누구나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계를 지키지 않으면 근심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육바라밀 실천을 통해 보살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보살은 계를 지키고, 깨달음을 얻어 더 이상 괴로움 받지 않는 가장 모범적 대상이다. 때문에 우리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행동으로 계를 지키는 보살과 닮아가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며 "완전히 계를 지켜 '지계'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극락정토에 다다를 수 있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수계를 받는다는 것이 보살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다. 오늘 수계를 통해 다시 한 번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 모든 중생의 성불을 발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우 스님은 수계제자들을 대표해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 총신도회장과 박영환 자문위원장, 이충훈·최미소 청년회원에 계첩을 수여하기도 했다.

지난날 무수히 지어온 잘못을 참회하는 참회과법 의식도 열렸다. 수계제자들이 참회진언을 염송하는 동안 증명법사스님들이 머리 위로 꽃비를 뿌리며 과오를 참회하고 계를 받아 청정하게 거듭날 것을 기원했다.

이승현 조계사 총신도회장은 찬서를 통해 "대덕스님들이 오늘 주신 가르침과 정수를 털끝만큼도 어기거나 잊지 않고 뼈 속 깊이 새겨 이 땅을 비로자나부처님, 노사나부처님, 석가모니부처님의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소윤 조계사 신도회 수석부회장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수계제자들은 더욱 견고한 지계정신을 갖겠다고 다짐했다.

선명상 강좌 '봇물'… 마음 평화 찾아볼까

불교인재원, 황룡원 중도타워서
2박3일 '힐링 선명상 캠프' 개최
인재원 · 흥국사 입문 강좌 개강도

선명상을 직접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누구나 쉽게 선명상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명상 강의와 명상 템플스테이, 도반들과 함께 떠나는 특별한 명상캠프 등으로, '선명상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경주의 새로운 불교문화 중심지 황룡원 중도타워에서 '힐링 선명상캠프'를 개최한다. 캠프는 2박 3일 코스로 8회차에 걸쳐 운영된다.

캠프에서는 박희승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불교인재원 이사)을 비롯한 명상지도사들이 강사를 맡아 부처님이 깨친 중도와 선명상 원리를 강의한다. 걷기명상, 좌식명상 등 다양한 명상 실습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특히 석굴암 부처님 참배와 함께하는 일출명상과 황룡사 9층 목탑지에서 진행되는 낙조 명상 등 특별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환희로움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선명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비용은 일반인 16만원, 학생 12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네이버 카페 '생활 선명상'이나 문자(010-4050-5969)로 하면 된다.

선명상 입문자들을 위한 강좌도 개강한다. 불교인재원은 5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종로 열린선원에서 '생활 선명상 제20기 입문코스'를 연다. 불교인재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해당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지난해 대면강좌로 전환했는데, 호응이 높아 이번 강좌도 대면으로 열게 됐다.

박희승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과 정혜경·백희인 생활참선 명상지도사가 강사로 나서 '태백산 선지식의 영원한 행복'을 교재로 중도와 정견, 화두 참선, 선명상 기초를 지도한다. 수업 6주차인 6월 22~23일에는 해인사 백련암에서 '화두 수련 템플스테이'에 참여한다. 템플스테이에서는 원택 스님이 성철 스님의 삼서근 화두를 일러준다.

고양 흥국사에서도 5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선명상 입문과정 11기'가 시작된다. 흥국사 주지 정문 스님을 증명법사로,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공부하고, 화두를 받아 명상하며 행복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 연기, 무아와 정견 세우기 △참선이란 무엇인가 △생활에서 참선하는 법 △화두선의 수행체계 △소감 함께하기 등 총 8강의 교육이 준비돼 있다. 6월 15~16일에는 흥국사에서 1박 2일 동안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자세한 문의는 흥국사(02-381-7970)로 하면 된다.

박희승 이사는 "힐링 명상과 참선·간화선의 장점을 적절히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선명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중성과 불교 본래 가치를 잘 살려 '선명상' 대중화에 일조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보급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진흥원, 봉축위에 5000만원 지원

연등회 등 봉축행사 활성화 위해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불기 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행사 원만 회향을 발원하며 정성을 보탰다.

진흥원은 4월 22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연등회 보존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에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한구 진흥원 이사장은 "오늘날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볼 때, 국가의 위기 때마다 국민과 함께 아픔을 나눠왔던 불교 정신을 오늘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이사장은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 표어처럼 불자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수행과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켜 일상의 소중함 속에서 진정한 삶의 지혜를 찾아가길 기원한다"고 덕담을 전했다.

진흥원은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민적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연등회' 등 봉축행사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내영 기자

황영웅 팬들, 난치병 환아에 자비나눔

4월 23일, 생명나눔에 500만원
혜공 스님 "공덕 수승한 기부"



가수 황영웅 팬들이 난치병 어린이 지원에 나서며 자비나눔을 실천해 훈훈함을 더한다.

황영웅 공식팬클럽 '파라다이스' 서울북부지역모임은 4월 23일 서울생명나눔실천본부에 방문, 난치병 어린이 치료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가수 황영웅은 지난해부터 '스타투표 리매치'를 통해 총 3540만원을 생명나눔이 진행하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 지원에 기부하며 꾸준한 선행을 실천해 왔다. 이번 팬클럽 '파라다이스'가 지원금을 기부하면서 가수 황영웅의 다양한 활동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 혜공 스님(조계종 문화부장)은 팬클럽 회원들에게 "아름답고 공덕이 수승한 기부"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은호 기자

경주 불국사·석굴암, 동국대에 1억원

경허록, 만공법어 편찬사업 지원
성행 스님 "자료 재정비에 힘"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주지 직무대행 종천 스님)와 석굴암(주지 종상 스님)이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의 발자취 연구 및 전산화 구축에 힘을 보탰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4월 22일 서울 동국대 4층 총장실에서 윤재웅 동국대 총장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사진〉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 산하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 자료집 편찬 및 연구를 비롯해 인재 육성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불국사를 대표해 참석한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경허 선사의 사상과 발자취, 법어 등 다양한 기록들을 재정비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기금을 전달했다"며 기금 전달 취지를 밝혔다.

임은호 기자



통일순례 행자들 '평화통일' 서원하다

민추본 제85차 월례강좌 김포 접경 평화순례 현장

35명 참여…애기봉 평화공원 찾아
1.4㎞ 밖 이북 조망, 분단현실 목도
김포 용화사서 평화통일발원문 낭독
"佛法따라 정진하면 통일 이룰 것"

김포=이민우 기자 mincow@hyunbul.com



한 회원이 조강 너머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다. '애기봉 루프탑 154 조망대'는 북한 개풍군과의 거리가 고작 1.4㎞에 불과한 최단거리 전망대다.



회원들이 문수산성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고향이 함흥인 최명자 회원이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다.



회원들이 용화사에서 평화통일을 발원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두 정상이 경계를 넘나들며 반갑게 악수하던 장면은 양 국민에게 평화통일이라는 꿈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란 희망을 안겨줬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그때 품었던 희망은 두 정부가 서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깨지고 말았다. 냉랭해지다 못해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가져온 허탈함과 좌절감에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는 새로운 판문점선언과 평화통일을 발원하며 평화순례길에 올랐다.

민추본은 4월 20일 제85차 월례강좌로 '4·27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 김포접경 평화순례'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총 35명의 순례객들은 한강하구수역 조강과 북한 개풍군이 조망되는 김포 남북접경지역을 탐방하며 대화와 존중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전쟁 및 갈등이 없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발원했다.

순례객들은 가장 먼저 김포 문수산성을 찾았다. 문수산성은 1694년(숙종 20) 문수산과 해안지대를 성채로 연결한 조선시대 산성으로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과 격전을 치른 역사적인 장소다.

당시 조선군은 우월한 군사장비로 무장한 프랑스군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다. 그럼에도 물러서지 않고 항쟁했고, 문수산성은 해안 쪽 성벽과 문루가 파괴되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 프랑스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 순례객들은 문수산성 성곽을 따라 문수산을 오르고 한창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성곽을 둘러보며 외세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저항했던 민족의 역사와 전쟁의 상흔을 되짚었다.

이어 순례객들이 방문한 장소는 한반도 유일의 남북 공동수역에 위치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조강을 사이에 두고 이북 땅을 직접 조망할 수 있는 '루프탑 154 조망대'는 북한 개풍군과의 거리가 고작 1.4㎞에 불과한 최단거리 전망대다. 6·25전쟁 당시 '154 고지'로 불리며 수차례 격전이 벌어졌던 군사요충지이이기도 하다.

북한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접경지역인 만큼 순례객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해병대 검문소였다.

버스에 올라타 순례객들의 신원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해병대원의 모습을 본 한 순례객은 "검문소와 총을 든 군인들을 보니 이곳이 접경지역인 것이 실감 난다"고 말했다.

조망대에 오르기 전 애기봉 평화생태전시관에서 애기봉 지명의 유래와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순례객들은 자유롭게 전시관을 관람하며 분단의 상징인 동시에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깨끗한 자연과 평화를 상징하는 애기봉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전시관 관람을 마치고 하나둘 조망대에 오른 순례객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건물이 선명하게 보이는 북한 개풍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순례객들의 얼굴에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음에도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이북 땅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났다.

몇 년 전 순례에서 애기봉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회상한 신유식 회원은 "확실히 그때보다 북한 땅에 건물이 늘어났다"고 운을 뗐다. 날씨가 좋으면 밭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과 뛰어노는 어린이들까지 보인다고 말한 신 회원은 "(서로가) 이렇게나 가까운데 왕래하지 못하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분단의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신 회원은 "민추본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평화통일의 발원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흐르고 다른 순례객들이 조금씩 조망대를 내려가 제법 한산해진 가운데 유독 북한 땅에서 눈을 떼지 못한 순례객이 있었다.

민추본 2기부터 활동을 해온 최명자 회원의 고향은 다름아닌 함흥. 발걸음을 돌리려는 찰나에도 수차례 고개를 돌려 북한 땅을 바라본 최 회원은 "세 살 때까지 함흥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며 "전쟁의 포화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오신 부모님도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셨다"고 전했다.

언젠가는 고향 땅을 다시 밟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민추본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최 회원.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꾸준히 민추본 평화순례에 참여해온 최 회원은 금강산과 천태종이 복원한 개성 영통사 등을 찾아 평화통일을 발원했고 지금도 염원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추본 순례객들은 손에 닿을 듯한 북한 땅을 뒤로하고 김포 용화사를 찾았다. 용화사는 민추본이 추진하는 평화통일도량사업에 참여한 사찰이기도 하다. 순례객들은 용화사에서 반야심경 봉독과 평화통일발원문을 낭독하며 공존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을 서원했다.

한창희 회원은 "2017년부터 민추본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곳을 직접 찾으니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민추본 활동에 적극 참여해 평화의 중요성을 가슴속에 새겨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부 회원인 임병석·박효순 회원은 "살면서 오늘처럼 남북접경지역을 찾아 북한 땅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민추본 활동을 통해 이처럼 희소한 기회를 잡고 몰랐던 역사와 비극적인 역사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니 마음에 더 와닿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두 회원은 "이 같이 뜻 깊은 활동에 부디 청년 세대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은 어디서도 하기 어려운 경험"이라고 말했다.

평화순례에 참여하기 위해 경북 구미에서 올라왔다는 박용철 회원은 "우리 사회의 화두는 언제나 평화통일"이라며 "같은 뜻과 생각을 가진 불자들끼리 함께 대화하고 생각을 공유해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던 순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를 중심으로 뭉친다면 갈라진 두 세계를 하나로 화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역사해설을 맡은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교수는 "남북관계 악화와 높아져가는 군사적 긴장감은 6년 전 4·27판문점선언으로 들떴던 양 국민에게 허탈함과 절망을 안겨줬다"면서도 "허탈함과 좌절감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오늘 평화순례에 임한 민추본 회원들의 모습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그들의 진심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부처님 법을 따라 정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간다면 오늘 발원한 평화통일은 머지않아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7천여 불자, 보살계로 불자 거듭나다

범어사, 124회 보살계 수계산림
수불 스님 전계대화상 증명으로
1박2일간 정근·법문 등 이어져
방장 정여 스님 직접 휘호 전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수불 스님을 비롯한 3사7증사스님들이 보살계 수계산림을 진행하고 있다.

불자의 실천 덕목인 보살계 수계산림이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에서 봉행됐다. 범어사 보살계는 124년 동안 이어져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번 수계산림에는 부산 및 경남 일대에서 7000여 불자들이 동참해 도량을 메웠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보제루 내 금강계단에서 '제124회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보살계 수계산림은 범석 수불 율사가 전계대화상을 맡았으며 금곡 화봉 율사, 산현 원창 율사가 갈마아사리와 교수아사리를 담당했다. 존증아사리는 정오, 일광, 혜진, 공마, 용학, 목종, 도경 스님이 7증사로 계단을 증명했다. 유나는 효천 스님, 인례는 심우 스님이 맡았다.

1박 2일간 진행된 수계산림은 천수다라니와 노사나불정근, 심지법문 및 축원, 보살계법문이 이어졌으며 수계식 및 계첩 수여로 마무리됐다.

전계대화상 수불 스님은 심지법문을 통해 "부처님이 중생을 왜 제도하려 하셨는지 깊이 인지하고 교화에 앞장서야 한다.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보살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범어사는 한국불교 근현대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살계 수계를 진행했고 올해 124회째를 맞았다"며 "보살계를 받은 공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이뤄가자"고 말했다.

특히 회향식에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가 참석해 보살계를 증명한 3사7증사에게 휘호를 내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여 대종사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계단에서 계를 받는 것은 참석한 모든 대중에게 행복한 일이다. 범어사 유래로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참석해 보살계를 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치하했다.

한편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의 역사는 124년 전 시작됐다. 1901년 중국 법원사의 만하 스님의 계맥을 이은 성월 스님이 범어사에 금강계단을 개설했다. 성월 스님의 계는 일봉, 운봉, 영명, 동산 스님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동산 스님은 1826년 대은 율사가 지리산 칠불에서 서상 수계해 금담, 초의, 범해, 선곡, 용성으로 전한 칠불맥을 용성 스님으로부터 전수해 이었다. 범어사에 따르면 이렇게 두 맥을 이은 동산 스님의 계는 석암, 고산, 수불로 이어졌다.

범어사 금강계단은 칠불의 계를 이은 용성으로부터 전계한 고암 문하의 광덕, 덕명, 흥교 율사들과 동산문하의 원사들이 번갈아 전계사로 소임을 담당하고 있다.

대풍 스님, 선교종 제9대 총무원장 취임

교육원 · 승려요양병원 설립 등
종단 중흥 위한 공약도 발표



한국불교선교종 제9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대풍 범각 스님이 종단기를 받아들고 대중을 향해 흔들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선교종 제9대 총무원장 대풍 범각 스님이 취임했다.

한국불교선교종은 4월 21일 부산 호텔농심 대연회장에서 제9대 총무원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대풍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선교겸수'와 '화쟁정신'의 실천을 천명했다.

대풍 스님은 △승재가를 위한 교육원 설립 △승려의료요양병원 불사 △비구니 선원 설립 △승려 노후연금제도 도입 △종단 직영 다비장 설치 등을 약속했다. 스님은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해선 중생구제 대원력을 석가세존의 가르침을 받들어야 한다"며 "지혜와 자비로 원력을 실천하는 종단, 세상을 이롭게 하는 종단, 불교중흥의 기적을 이뤄내는 종단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선교종 종정 경보 혜만 스님은 "우리 모두 크게 마음을 돌이켜 영원한 모습으로 변함없는 옛 거울을 회광반조해 분명하게 밝히자"며 "옛 거울을 밝혀서 사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무한한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설법했다.

제7~8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도신 스님은 이임사에서 "범각 스님을 정점으로 합심 단결하고 부처님 가르침과 종정예하의 교시, 종단 원훈을 이어 받아 종단 번창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빈으로는 전 범어사 전계대화상 흥교 대종사, 한국불교종단연합회 법인관리위원장 무공 스님, 대한불교반야종 총무원장 지법 스님, 한국불교종단연합회장 성철 스님, 대한불교승가공동회장 도연 스님,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혜승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선교종 제9대 총무원장 대풍 범각 스님은 1994년 지리산 흑룡사 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5년 사단법인 한국불교선교종 전신인 대한불교선교종 덕성사 혜종 스님을 은사로 재출가했다. 스님은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학을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코웬대 체육교육과 석사 및 명예철학박사를 취득했다. 몽골의 몽골국립체육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 스리랑카 사이언스 승가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의료봉사단 사단법인 행복한사회를 결성해 스리랑카, 중국, 남인도 등에 학생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재난 구호활동에 앞장서 스리랑카 대통령 감사장과 네팔·티베트 평화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하늘의 지혜 붓다의 침묵〉 〈진심법문〉 〈진심법문2〉 〈불자보감〉 등이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우리 전통 느티떡, 함께 만들어요"

부산봉행위 '느티떡 전승회'



부산연등회봉행위원회(위원장 정오 스님)가 4월 18일 범어사 하후원에서 '불기 2568년 부산연등회 느티떡 전승회'를 개최했다.〈사진〉 전승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사무부총장 정수 스님과 보신 스님을 비롯해 진각종, 삼광사, 진여원, 화엄승가회 등 신행단체 및 사찰 신도들이 동참했다.

느티떡 전승을 위해 참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범어사 경내 느티나무에 올라 직접 새순을 따고, 잎을 물로 씻어 물기를 제거했다. 이후 쌀가루를 설탕과 소금으로 절인 느티잎과 골고루 비벼 베보자기를 깐 찜통 시루에 담아 쪄냈다. 완성된 느티떡은 상큼한 느티향이 고루 풍겨 담백한 풍미를 자랑했다.

사무부총장 정수 스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느티떡을 알고 그 안에 있는 불교전통문화와 우리 민족의 고유 풍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포교사단, '명상포교' 화두로 연수

부산 포교사단 상반기 연수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은 4월 20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불기 2568년 포교사단 리플레이 교육 오프라인 강좌 특강-부산지역단 상반기 분야별 연수'를 실시했다.〈사진〉

부산지역단은 매년 포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연수는 행복선 명상센터의 '명상과 치유'를 주제로 진행됐다. 연수에는 미타선원 선원장 하림 스님, 김영석 포교사단장과 송재린 부산지역단장, 홍순하 행복선 명상센터장을 비롯해 부산지역단 소속 포교사들이 동참했다.

포교사단은 명상포교를 강조하기 위해 현재 명상지도사(가칭) 1급과 2급 지도자 과정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내용은 사념처 수행을 경전에 의거해 실참하고 적용하는 명상법을 구상 중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금정구불교연합 회장 동암 스님 취임

4월 20일, 회장 이 · 취임법회



부산 금정구불교연합회는 4월 20일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금정구불교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 천태종 전 총무원장 춘광 스님, 금정구불교연합회 전 회장 고담 스님, 신임회장 동암 스님 등 승가 내빈과 백종헌 국회의원, 김재윤 금정구청장,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 등이 동참했다.〈사진〉

신임회장 동암 스님은 "고담 스님께서 앞서 이뤄놓은 빛나는 업적을 교훈으로 받들어 배움의 자세로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임회장 고담 스님은 "이렇게 무사히 이임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지지해주신 회원스님들의 협조 덕분이다. 새 회장 동암 스님이 원융무애한 소통과 화합, 불법홍포로 지역사회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인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NEW "식물성 연꽃향 양초"
오랜 시간 완벽한 배합 비율을 연구, 개발하여
2024년 향긋한 연꽃향 양초를 출시하게 되었으며, 다년간의 개발 및 연구를 통해
완성된 "식물성 연꽃향 양초"를 스님과 불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또한 신제품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는 연소시 중앙부만 연소되는 단점을 완전히 보완하여 전부 연소시킵니다.
연꽃향양초 샘플이 필요한신 분은 전화번호, 성함, 주소를 010-5265-5118로 문자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
특 大(대) 7.5Φ×41㎝ 16개 120,000원
大(대) 8.5Φ×33㎝ 20개 140,000원

식물성 연꽃향 양초
〈원기둥〉 7.4Φ×29㎝ 20개 120,000원
〈돈타레〉 5.6Φ×26㎝ 30개 105,000원
〈밀대〉 4.7Φ×24㎝ 40개 92,000원

「해광양초는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를 제조 판매합니다.」

신제품 반야심경 디퓨져
한글로 새겨진 반야심경 디퓨져는 오랜 잔향을 남기어 일상생활 속 귀한 기운을 갖게 도와줍니다.
연꽃디퓨져
연꽃디퓨져 연꽃처럼 예쁜 향기로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선사합니다.
침향디퓨져 뇌를 깨우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여 고요한 기운을 전합니다.
침향디퓨져
100㎖ 디퓨져 29,000원
200㎖ 디퓨져 39,000원

신제품 도자기 (초)받침
*기존 촛대 안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양초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고 청소가 간편합니다.
정면 구멍있는 받침
탑뷰 구멍없는 받침

NAVER 해광양초 해광산업 상담문의 010-5265-5118 / 031-333-024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416-8 (이일로 112-6)

화엄사 매화사진 콘테스트 수상자 누굴까

옥맹선 전문작가 총무원장상 선정
휴대폰 부문 대상에는 김동희 씨
1141개 작품 출품…열띤 경합 펼쳐
5월 15일, 봉축법요식에서 시상식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19교구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가 '2024 제4회 화엄사 홍매화·들매화 사진 콘테스트의 응모작 심사 결과 수상작'을 발표했다.

화엄사는 "전체 응모작은 1141개 작품으로 전문작가 사진 405개, 휴대폰 카메라 사진 736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지난 2023년에 출품된 총 897개 작품보다 훨씬 더 열띤 경합을 벌였다"고 밝혔다.

올해 전문작가 사진부문으로 '화엄매의 자태'를 출품한 옥맹선 씨가 최우수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부상, 화엄사 템플스테이 1박 2일 이용권이 주어졌다. 휴대폰 카메라 사진부문 최우수상인 화엄사 교구장스님상에는 '화엄매 야경 반영'을 출품한 김동희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상금 70만원 등 부상이 전달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장은 "이번 사진 심사에서는 휴대폰으로 촬영해 접수한 사진이 많아 사진대회가 화엄사의 또 하나의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화엄사의 상징이자 대표격인 홍매화를 과거 사진 입상작들과의 구도를 벗어나 창의력이 깃든 사진에 많은 점수를 준 반면 사진 촬영 후 보정이 심한 것은 제외했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4회를 맞은 이번 홍매화·들매화 사진 콘테스트는 각황전 옆 홍매화가


총무원장상 수상작 옥맹선 씨의 '화엄매의 자태'.

국가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후 첫 번째 행사다. 전국 각지에 있는 전문 사진작가들이 새벽부터 저녁 산문을 닫는 시간까지 온종일 홍매화를 담는데 여념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이번 콘테스트가 진행된 35일 기간 동안 25만5000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화엄사를 찾았다. 이는 화엄사 창건이래 특정 기간동안 최다 방문객을 맞은 진기록으로 평가된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교통의 오지인 구례 지리산 대화엄사를 많이 사랑해 주고 방문해 주신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당부의 말도 남겼다. 덕문 스님은 "외국에 관광을 가면 그 나라의 보물·유물을 아끼는데 정작 우리나라 유적들은 쉽게 다루고 소중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은 아쉬움이 든다"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다음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진 콘테스트의 수상작들은 화엄사 2025년 화엄사 달력과 홍보물에 게재되며, 구례군 홍보에도 사용한다. 시상은 오는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 화엄사 봉축법요식에서 개최된다.

선운사 고창포교당, 숫타니파타회 발대식

세대 아우르는 불교인재 육성
명상, 교육, 순례 등 진행 예정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고창교육문화회관 고창포교당(주지 수찬 스님)이 4월 23일 전법과 교육, 수행을 위한 '숫타니파타회' 발대식을 봉행했다.〈사진〉

숫타니파타회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층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불자 육성을 위해 결성됐다.

숫타니파타회에서는 다양한 프로



그램으로 고창포교당 신도회의 활성화를 이끌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불교교육으로 신규 불자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주 일요일 어린이 법회를 열고 초기 불전인 숫타니파타와 체계적인 불교 교육, 불교와 물리학을 접목한 교육 등 알기 쉬운 불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선운사 고창포교당 주지 수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고창포교당은 숫타니파타회와 더불어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명상, 치유, 교육, 문화, 성지순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총무국장 현적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일으킨 한 생각은 분명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고창 불교 발전의 초석이 되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수찬 스님을 중심으로 마음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찬 스님은 최은서 숫타니파타회장, 정성남 부회장, 최창근 총무국장, 조봉헌 청소년 포교팀장, 유인재 기획홍보팀장 등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감사에는 최국순, 박유자 불자를, 자문위원으로는 김길태, 남혜경 교수를 위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차 시배지' 하동 쌍계사, 차문화 축전 연다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동안
K-팝 콘서트 등 프로그램 다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차를 재배하기 시작한 시배지인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지현 스님)가 '2024년 차문화 대축전'을 연다.

쌍계사는 5월 2~5일 4일간 천년을 이어온 차의 역사와 전통 차문화를 체험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하동 야생차 축제'와 연계해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한국 전통 차문화와 미래세대를 잇는 문학 장르의 확산을 꾀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5월 2일 쌍계사 차나무 시배지에서의 개원 채다를 시작으로, 5월 3일에는 쌍계사 괘불전과 팔영루에서 세계차와 신라다도, 고려다도, 조선 전통다도, 선차시현이 열린다. 제36회 진감·초의·고산 다맥 전수식과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K-어울림 축제'도 이어진다. 5월 4일에는 쌍계사 차 시배지 답사와 시쓰기로 구성된 특별 청소년프로그램 '茶-디카시로 만나다'가 준비돼 있다.

'茶-디카시로 만나다'는 디지털 시대에 멀티언어예술인 디카시를 통해 쌍계사 시배지차를 만나는 특별한 경험으로, 청소년들에게 한국문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축하행사도 마련됐다. K-pop콘서트와 조영남, 송창식, 김세환이 출연하는 고산음악회 쎄시봉콘서트를 선보인다.

5월 5일에는 차 박물관 특설무대에서 국가별 문화공연과 각 나라의 음식을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문도 화합으로 백양사 발전 이루겠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취임법회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4월 19일 경내 대웅전에서 역대 조사 다례재와 함께 무공 스님〈사진〉의 주지 취임식을 가졌다.

무공 스님은 취임 일성을 통해 "지난 4년 초임 주지로 살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문도의 화합을 바탕으로 역대 조사스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소임을 살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백양사 명예원로의원 암도 스님, 원로의원 성오 스님,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 무공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중앙종회의원 만당 스님, 향문 스님(미황사)을 비롯해 백양사 문도스님들과 김광태 백양사 신도회장, 장경덕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장, 고재진 장성군 의장 등 사부대중이 참여해 축하했다.

문도를 대표해 성오 스님은 "4년 전 어려운 여건에서 무공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아 백양사 정상화에 큰 노력을 해주셨다"며 "무엇보다도 화합을 최우선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해 동림선원 개원 6주년 기념법회

지역 청소년에 장학금 전달도



2018년 개원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김해 동림선원(주지 신공 스님)이 4월 20일 3층 대법당에서 개원 6주년과 은암문화재단 창립 4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동림선원 주지 신공 스님은 "6년 전 건물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원력과 신심으로 도량이 점차 발전돼 가고 있다"며 "동림선원이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사찰로 발전하고 은암문화재단도 불교 문화 발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큰 힘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개원기념 법회에서는 은암문화재단 장학금 전달식도 열렸다. 은암문화재단 이사장 신공 스님은 박건영(계명대 웹툰전공학과), 우상민(동국대 법학과), 송영호(부산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이지원(부산대 철학과), 이민서(부산대 대학원 법학과) 학생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북 봉축위, 봉축기원탑 점등법회

전주역앞 마중길 분수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일원 스님, 진성 스님)는 4월 21일 전주역 앞 마중길 분수대에서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 날을 봉축하는 봉축기원탑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점등한 기원탑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난과 사회적 갈등, 이념대립 등의 위기를 극복의지를 담아 익산 미륵사지 동탑을 1/5로 축소한 전주한지로 제작됐다.

전북 봉축위원회 공동위원장 진성 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장)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불교의 연기사상과 생명존중은 환경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인류의 주목과 기대를 받고 있다"며 "자비의 연등, 환경의 연등에 불을 밝혀 불교사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불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 불교계 봉축 점등식 잇달아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가 4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을 갖고 올해 광주지역 봉축행사를 시작했다.〈사진〉 이날 불을 밝힌 봉축탑은 강진 월남사지 5층석탑을 전통한지로 재현한 것으로 높이가 15m에 달한다.

구례불교사암연합회(회장 덕문 스님)도 4월 21일 구례경찰서 앞 광장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하고 지역 불교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문수보살상을 한지로 재현한 봉축탑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양산시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

영축총림 통도사와 양산불교사암연합회가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와 양산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동진 스님, 미타암 주지)는 4월 22일 양산시 종합운동장 양산대종 앞 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부처님의 큰 진리의 큰 가르침이 우리 양산의 곳곳에 스며들어 양산이 세계에서 가장 품격 높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돕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충북불교총연합회 부처님오신날 기원법회

충청북도불교총연합회(회장 정덕 스님, 법주사 주지)가 4월 23일 청주 S컨벤션본관 4층에서 부처님오신날 기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 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 도성 원장 스님, 천태종 명장사 주지 도웅 스님, 청주시 불교연합회장 용화사 주지 각연 스님, 진각종 각계심인당 혜심 정사님, 대한불교선학원 풍수사 주지 덕일 스님을 비롯해 시군별 사암연합회장스님들,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윤건영 충북교육청 교육감 및 각급기관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정읍 불교사암연 봉축기원탑 점등식

정읍불교사암연합회(회장 대원 스님. 내장사 주지)는 4월 18일 정읍시 연지아트홀 로터리 광장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정읍 불교사암연합회장 대원 스님은 "사부대중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 정진하고 자비를 실천하여 중생을 제도하며 시대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불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읍불교사암연합회장 대원 스님은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음성불교사암연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음성군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상인 스님, 가섭사 주지, 이하 연합회)가 4월 19일 음성 문화예술회간에서 부처님오신날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연합회 회장 상인 스님은 "오늘의 점등으로 밝은 빛이 골고루 퍼져 모든 이가 차별되지 않고 밝은 마음, 밝은 미소로 아름다운 음성군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연합회 부회장 도봉 스님(원각사 주지), 연합회 사무총장 도암 스님(진불사 주지)과 안해성 음성군의회의장 등이 동참했다.

한편 음성군 봉축법요식 및 제등행렬은 5월 11일 오후 4시 설성공원 일원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충남도청불자회 부처님오신날 점등법회

창립 30주년을 맞은 충남도청불자회(회장 허창덕)가 충남도청 로비에서 '2024년 부처님오신날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점등법회에는 조계종 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예산주지협의회장 효성 스님(향천사 주지), 서산주지협의회장 혜산 스님(개심사 주지), 태안주지협의회장 흥법 스님(태을암 주지), 당진주지협의회장 상준 스님(영랑사 주지)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날마다 부딪치는 중생의 모습과 이웃의 가슴속에 부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자"는 봉축법어를 남겼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동풍 총동문회’, 한국 최고 풍수지리 동문회 발돋움



2024년 4월 21일 열린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과정 총동문회 제2회 세미나에 참여한 동풍 동문들이 발전을 다짐하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4월 21일 동국대서 제2회 학술 세미나 성료

50여 풍수사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풍수학설 논한 자리
생활 풍수로의 전환 기회로
안철주 “세종기념관 건립을”

조선왕조 태조 6년인 1397년 5월 15일 인왕산 동쪽 준수방에서 정안군 이방원의 셋째 아들 충녕군 이도(훗날 세종)가 탄생했다. 정안군 이방원은 조선 초기 정도전 등 공신 세력에게 밀려 지금의 통인시장 근처에 살았다. 준수방은 경복궁 영추문 건너편 동네로 1750년대 도성대지도를 보면 경복궁 서편의 청운동을 흘러내리는 맑은 물과 옥인동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합쳐지는 작은 삼각지대로 표기되어 있다.

세종대왕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한글을 아는 이라면 세종대왕은 다 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세종이 묻힌 여주 영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 대부분 이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세종이 22세까지 살았던 그곳에 대해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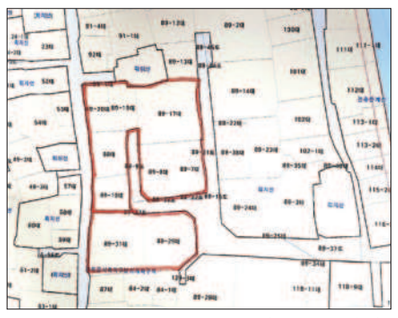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 CEO과정 총동문회(회장 도심 스님, 이하 동풍 총동문회)가 4월 21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제2회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준수방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과 한글 보급의 중요성, 그리고 한글에 숨겨진 음양오행의 원리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펼쳐졌다.

이날 제1발제를 맡은 안철주 동풍 총동문회 고문은 “한글윷놀이를 비롯한 한글 보급에 천착했다. 세종대왕께서 나신 곳을 추정하여 재를 지내며 이를 알리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며 “풍수지리학적으로 종로구 통인동 89번지 일대 약 518평이 세종대왕 나신 곳”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주 동풍 총동문회 고문



1750년대 도성대지도. 준수방 위치를 볼 수 있다.


안철주 고문 추정 세종대왕 나신 곳(통인동 89번지).

안 고문은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광화문 광장을 찾고 경복궁을 방문하는 시대다. 준수방 자리에 세종탄신기념관을 비롯하여 한글체험교육관을 건립해야겠다는 원력을 갖고 있다. 학계에서 준수방 자리를 두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 지역 일대를 추정하여 사업을 진행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고문은 발제에서 2016년부터 천착하고 있는 한글윷놀이와 한글 속의 음양오행 구조에 관해 설명했다. 안 고문은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따라 자음과 모음을 발성기관별로 윷판에 배열하여 윷놀이하며 한글을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창안됐다”고 설명했다. 안 고문에 따르면 한글윷놀이 과정에서 윷판과 윷말의 자음과 모음 조합을 통해 약 600단어를 만들 수 있으며, 이 단어를 통하여 쉽게 한글을 익힐 수 있다.

안 고문은 “세종께서 만드신 한글은 풍수에서 중요시했던 자연의 원리와 음양오행의 원리가 담겨 있다. 음양오행이 결국 자연스러운 조화를 나타내기에 이것이 바로 세계 언어학자들도 한글을 으뜸으로 삼는 근간”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 세미나에서는 양상현 현장교수가 ‘생지명당에 과학적 접목’ 발표를 통해 “시대변화에 따라 풍수 공부도 변해야 한다. 명당에 대한 의식은 시대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라며 “수천 년 전 초원시적 고서에 의존하는 고집을 내려놓고, 현대과학에 준용한 내용을 펼쳐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 속 아파트 빌라 등의 감정평가에 풍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세계화 시대에 해외의 여러 장소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은 변화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풍수와 선불교’를 발표한 현장교수 재홍 스님도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나 스스로가 주연이다’라는 것이다. 내 스스로 그릇이 되어야 삶의 터전이 바뀌고 가장 명당터인 곳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이라며 “풍수는 외부적 요건에 따라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삶을 윤택하게 하는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명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야 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리를 살펴야 진정한 명당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기영 고문의 ‘조선왕조의 풍수 제도 고찰’이 발표됐다.

끝으로 동풍 총동문회 상임수석부회장 무각 스님은 “풍수와 불교는 밀접한 관계다. 조선조 억불숭유 당시 사찰들이 산중에 자리잡게 된 이면에 풍수지리사상이 있었다”며 “금번 세미나는 3회 세미나를 위한 사전행사로 앞으로 동풍 동문들이 힘을 모아 정진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종립 동국대’ 위상 맞게 조직 뒷바라지

동풍 총동문회장 도심 스님

2019년 총동문회 발족
물심양면 조직화 이끌어
“대중 마음 편케하는
佛法 방편으로 활용”



2019년 초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한 도심 스님은 5년 동안 풍수지리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스님은 “한국 풍수지리는 불교와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고 접목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언제부턴가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웠다”라며 “풍수사들이 모범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했고, 그 연장선에서 연간 10회의 현장학습과 토론회를 거쳐 동문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스님은 총동문회 운영에서 회원들의 활동을 회비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사비를 들여 활동을 지원했다. 5년 임기 동안 스님이 지원한 액수만 1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

스님은 “현장학습은 학업의 일환이기에 장학금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지원했다. 다들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화합하여 한국 최고의 풍수사, 한국 최고의 풍수지리학 터전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진했다”라고 말했다.

도심 스님은 2025년 4월까지 총동문회장으로서 1년 임기를 남기고 있다.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은 결국 수많은 대중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풍수 또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라며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조직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다짐했다.

‘동풍 총동문회’, 사회공헌 지속… 한국풍수 중심으로 발전

풍수지리학은 동양지리학의 한 분야로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활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전통학문이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현대화된 학문 발전의 필요에 따라 큰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중 동국대 행정대학원 내 ‘생활풍수CEO과정’은 이 과정을 거친 이들이 동풍 총동문회를 통하여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어 한국풍수학계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생활풍수’라는 타이틀에 맞게 양택(살아있는 자의 풍수택지)에 주목하고 있다.

동풍 총동문회는 동풍 교육과정을 이수한 1기부터 19기까지의 300여 명이 2019년 4월 23일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발족시켰다.

초대회장으로 동풍 6기인 안성 연등사 주지 도심 스님을 추대한 이후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동풍 총동문회는 종립 동국대 산하 교육과정으로 ‘도선대사’와 ‘무학대사’ 등 불교계의 풍수 연관된 고승 대덕의 발자취를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사찰 등에서 다양한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6월 괴산 흥천사 우암 송시열 묘소 답사, 2021년 10월 건봉사 답사, 2021년 11월 공주 봉황동 영규대사 묘소 답사, 2022년 5월 조계사 현장학습, 2022년 11월 한양도성 간산, 길상사 현장학습, 청와대 답사, 2022년 12월 한양도성 3차 간산, 신덕왕후묘소 현장학습, 2023년 7월 용인 와우정사 현장학습, 2023년 9월 국립현충원 현장학습, 2023년 11월 음성 반기문생가 현장학습, 2024년 1월 선운사 김요협 묘소 현장학습 등을 진행했다.

학문 발전에도 힘써 2023년 4월 16일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제4차산업혁명시대 한국풍수의 재정립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1회 풍수지리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2024년 4월 21일 동국대에서 제2회 풍수지리 세미나를 열었다.

이밖에 사회공헌을 위하여 각계 봉사활동과 함께 후학양성을 위해 2019년 총동문회 출범 때 총동문회장 도심 스님이 동국대 발전기금 2,000만 원을, 2023년 4월 16일 제1회 세미나에서는 방송통신대에 프로젝트500기금 1,000만 원을, 2023년 9월 1일 동국대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전달한 데 이어 2024년 4월 21일 제2회 세미나 현장에서 행정대학원 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시로 만나는 '문학인' 만해 스님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성북근현대미술관에 전시 중인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 등 자료들

성북근현대문학관, 9월 29일까지
특별전시 '괴룬 것은 다 님이다'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5월말까지
한시 전시로 철학적 심사 탐구도



만해기념관에 전시 중인 '자경귀오세암증박한영'

불교 개혁론자이자 민족운동가이기도한 만해 스님은 문학인으로서도 한국 근대사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스님의 시와 문학은 단순한 예술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와 인간의 삶에 대한 심오한 고찰을 담고 있기 때문. 만해 스님이 저항문학가로 불리는 이유다.

아름다운 우리말로 자유시를 썼고, 잡지를 발간하고, 현대적 개념의 소설을 발표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인간적 감성과 깊은 철학적 심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잇따라 열려 눈길을 끈다.

최근 서울 성북구에 개관한 성북근현대문학관은 9월 29일까지 관내 1층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시 '만해 한용운의 문학과 심우장-괴룬 것은 다 님이다'를 진행한다. 문학과 개관 첫 전시인 이번 전시는 올해가 만해 스님 입적 80주기이기에 더 큰 의미를 더한다. 전시는 △나의 길-마음을 실천한 66년 △님의 침묵-침묵의 역설 △예술가-실천으로 이룬 문학 △심우-잃어버린 소를 찾는 집 △독자에게-나의 시를 읽을 때 등으로 구성됐다.

전시 첫 코너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만해 스님의 문학과 실천으로 구성한 연표는 스님의 시 '나룻배와 행인'을 모티브로 물결을 표현해 눈길을 끈다.

국내 소량만 남아있는 '님의 침묵'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단독 전시공간도 이색적이다. 전시된 '님의 침묵'은 1926년 초판본으로, 판권지 분석과 원본을 통해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님의 침묵' 재판본, '조선불교유신론', 잡지 '불교' 등의 실물자료도 만나볼 수 있다.

전시에서는 만해 스님의 문학을 수양과 실천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그 뜻을 펼치며 계승한 공간으로 심우장도 소개한다. 또 3·1운동, 민립대학 설립, 신간회 활동, 조선 청년 동맹 등 독립운동을 살펴보며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도 만나볼 수 있다. 말미에는 성북구민과 만해 스님의 외손주 정재홍 선생의 시 낭송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시를 통해 만해 스님의 인간적인 감성과 깊은 철학적 심사를 탐구할 수 있는 전시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인근에 위치한 만해기념관(관장 진보삼)은 5월 31일까지 '만해 한용운 한시'를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전시에서는 만해 스님의 한시가 가진 예술적, 철학적 가치를 조명한다. 각 작품 옆에는 친절한 해설을 덧붙여 관람객이 시의 배경과 함께 스님의 생각과 감정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만해 스님의 사상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진보삼 관장은 "만해 스님의 한시는 스님의 사상과 더불어 인간 한용운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며, 이를 통해 우리는 스님의 생각과 감정, 믿음을 공유하고자 하는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서 만나는 '직지, 그 모든 것의 시작'

청주고인쇄박물관, 6월 말까지
독일 클링스포어박물관서 전시
한국 금속활자 인쇄술 소개도



'직지, 그 모든 것의 시작' 포스터.

청주고인쇄박물관은 4월 28일~6월 30일 독일 클링스포어박물관에서 해외 특별전 '직지, 그 모든 것의 시작-한국의 금속활자 빅뱅'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22년 직지문화제에서 진행된 클링스포어박물관 세계인쇄교류특별전 '한국에 경의를, 클링스포어 박물관의 보물'의 답방 전시다. 지난해 9월 '직지 복본 및 한지 유네스코 본부 특별전'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직지 복본을 선보이는 자리다. 직지 복본은 2021년 청주고인쇄박물관과 직지 소장 기관인 프랑스국립도서관이 협력해 원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지의 원형을 고스란히 재현한 결과물이다. 현재 상태 복본과 발간 당시 최초 상태 추정 복본, 총 2종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소개하고 직지를 찍어낸 종이인 한지와 다양한 한지 공예품을 포함해 총 60종 이상의 전시품이 소개된다. 모든 전시 내용은 한국어와 독일어가 병기된다.

전시 기간에는 독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시전지 목판 체험, 직지와 한국의 인쇄문화 교육, 책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직지의 내용을 다루는 토크 콘서트도 함께 진행된다. 주말에는 한국어와 독일어 전시해설도 제공된다. 이 밖에도 전시 기간 뮌헨이 있는 국립독일박물관을 포함해 독일 곳곳에서 팝업 전시 형태의 연계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클링스포어박물관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오펜바흐시에 위치하고 있다. 타이포그래피, 캘리그래피, 북아트 등 약 8만여 점의 다양한 근현대 인쇄 관련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인쇄의 보고'로 손꼽히고 있다. 청주고인쇄박물관과 클링스포어박물관은 지난 2016년부터 세계인쇄박물관협회 네트워크를 통해 꾸준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임은호 기자

경주 칠불암·제주 선덕사, 국가유산 대표 브랜드 됐다

문화재청, '5감 힐링체험'
'보멍 들으멍, 마음에 새기다'
산사 문화유산 활용 사업 선정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최근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가운데 경주 칠불암의 '5감 힐링체험'과 제주 서귀포시 선덕사의 '보멍 들으멍, 마음에 새기다' 등 10건을 대표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칠불암 5감 힐링체험은 경주 남산의 유일한 국보 '칠불암 마애불상군'을 주제로 오감과 문화유산·숲·예술·명상 등을 융·복합한 프로그램이다.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을 추구하는 웰니스를 지향해 문화유산의 현대적 효용성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 캠페인으로 미래 가치를 구현했다. 11월까지 매월 둘째 금·토요일에 사전 예약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등산이 어려운 유아·어르신·장애인 등 누구나 토크쇼와 각종 체험이 가능하다. 현재 경북도교육청과 신라공업고, 동국대 WISE캠퍼스 동아리 동국산악부가 3개월간 예약을 완료,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선정된 경주 칠불암 '5감 힐링체험' 홍보 사진.

주낙영 경주시장은 "문화유산과 힐링이 어우러진 콘텐츠로 발전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며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덕사의 '보멍 들으멍, 마음에 새기다'는 선덕사 소장 문화재인 '묘법연화경'의 주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와 역사, 철학 등을 많은 이들이 즐기고 문화로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특히 선덕사는 정보통신 기술(ICT) 실감 콘텐츠를 개발, AR체험과 미디어아트 관람 등을 제공해 2023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 활용 '우수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임은호 기자

우리옛그림연구회 회원전 개최

5월 1~7일, 서울 갤러리 이즈

전통회화연구단체 우리옛그림연구회가 5월 1~7일 서울 갤러리 이즈 2층에서 회원전을 개최한다.

우리옛그림연구회(회장 한유경)는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문화강좌 민화반을 수업하고 있는 민화전문강사 심안이 만든 전통회화연구단체다. 연구회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연구반 회원들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2004년 전국비구니회관 문화강좌 민화교실의 수업이 시작된 이래로 연구반회원들과 함께 우리옛그림을 모사, 방작하며 나아가 우리의 전통회화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고, 전통에 기반한 다양한 채색 표현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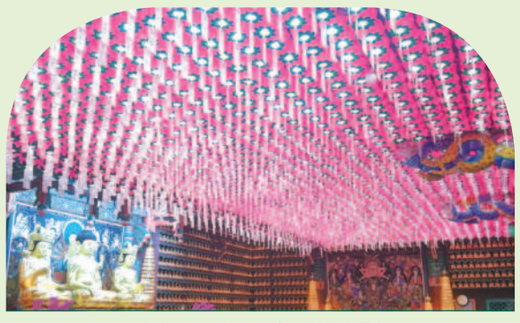

송재강 作, 두꺼비와 패랭이꽃, 20x23cm, 한지에 먹과 동양화물감 2024.

이번 회원전에서는 우리나라의 옛그림 전반을 다룬다. 먹과 채색의 조화로 우리옛그림연구회에서 추구하는 형태와 색감, 정서가 담긴 작품을 선보인다. 김경희, 김순애, 김영화, 송원경, 송재강, 신영희, 원진경, 이화연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02-3411-8104 임은호 기자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www.boryeon.com 시공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Instagram NAVER 블로그 검색 : 보련기획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


원불전


법당특별장엄등

장엄등 절찬 판매


만월등


도량장엄등


인 등


위 패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24~4/3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내려놓기)	법륜 지음	정토	6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초기불전003) 대반열반경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2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7	안반수의경(선전총서7)	안세고 한역/석법성	운주사
3	영화스님의 선명상	영화 스님	운주사	8	요가수행디피카(아행가요가시리즈5) 완전함 내면의 평화해탈의 길	아행가, 존J.에반스, 더글라스 에이브람스	선요가
4	육조단경	청화 역주	광륜출판사	9	대념처경과 위빳사나 명상:이와같이 나는 대념처경을 읽었다	정순일 역해	운주사
5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10	어싱:땅과의접촉이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책세상

들뢰즈 철학으로 사유한 '무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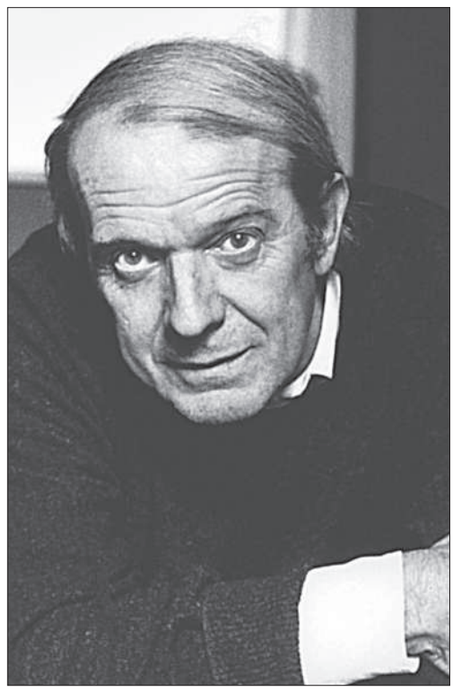


무문관을 사색하다
박인성 지음
그린비/ 2만6000원

박인성 명예교수, '무문관' 공안들
들뢰즈 '차이의 철학' 통해 사유해
선불교 역설의 언어, 철학어로 해석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무문 혜개 선사를 판화로 표현한 작품(사진 왼쪽)과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의 모습(사진 오른쪽)

남송 시대 선승 무문 혜개(無門 慧開, 1183~1260) 선사가 지은 〈무문관〉은 〈종용록〉 〈벽암록〉과 함께 3대 공안집으로 불린다. 〈무문관〉은 총 48칙(則)의 공안과 함께, 평론해 길게 해설해 놓은 평창(評唱)과 간단하게 외우도록 시조 형식으로 풀이한 송(頌)으로 구성됐다.

박인성 동국대 명예교수가 저술한 〈무문관을 사색하다〉는 〈무문관〉의 본칙·평창·송을 해독·해석한 책이다. 무문관은 공안집의 이름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영화, 수행처의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 저간에는 〈무문관〉 제1칙 '조주구자' 공안의 '무(無)'가 맴돌고 있다. 소위 '무자 화두'는 동북아시아 대승불교국가 선자(禪者)들이 가장 많이 드는 화두이다. 무문 혜개 선사 역시 '무'자 공안을 수년간 참구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무문관〉 48칙 공안은 '1700공안'의 요체를 담고 있고 있으면서도 '무'자 공안으로 귀결되고 있다. 〈무문관을 사색하다〉는 '무'자 공안을 위시한 〈무무관〉의 본칙들의 위력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가를 사유·탐구한다.

아비달마, 중관, 유식, 인명 등 인도불교를 오래 연구해 온 저자는 중국 선불교 공안집 〈무문관〉에 이끌린 이유에 대해 "모든 공안집의 공안(화두)이 담고 있는, '차이의 언어'인 활구(活句)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모든 유형의 불교가 차이 그 자체를 지향해 왔지만, 일상어에서 차이 그 자체를 추구하고 발견한 불교는 선불교가 유일하다"면서 "선불교의 언어들은 일상어의 사구와 활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활구는 역설의 언어, 차이의 언어"임을 분명히 했다.

박인성 명예교수는 저작에서 〈무문관〉의 본칙·평창·송을 오늘날의 일상어와 철학어로 해독하고 해석해낸다. 해독·해석의 근간에는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Gille Deleuze, 1925~1995)의 철학이 있다. 들뢰즈의 철학을 '차이의 철학'이라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들뢰즈는 붓다가 이미 2500여 년 전 자신의 전 사상 체계에서 일관되게 적용한 '차이의 개념'을 훌륭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에 박인성 명예교수는 "들뢰즈 등의 철학자가 등장하면서 사유가 동일성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해방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니체와 하이데거 이후, 차이를 거론하는 철학자는 데리다 등 여러 철학자가 있었지만, 차이를 가장 잘 전개하고 완성한 학자는 들뢰즈"라고 평했다.

저자는 〈무문관〉의 공안들을 해독하고 해석하면서 들뢰즈의 여러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는 '무-의미(non-sense)'다. 이는 들뢰즈의 저서 〈의미의 논리〉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다. 언급되는 '무-의미'를 일상에서 쓰는 '무의미'로 여겨서는 안 된다. '무-의미'는 의미를 결여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를 생성하게 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선불교의 활구(活句)는 무-의미의 활구와 의미의 활구, 이렇게 둘로 나뉜다. 〈무문관〉의 공안들은 곧바로 무-의미로 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미를 거쳐 가는 때도 종종 있다. 이 의미(sense) 역시 활구이다. 들뢰즈의 '의미'는 의미·사건으로 표현되는 데서 알 수 있듯 순수생성(pure becoming)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저자도 밝히고 있지만 들뢰즈 철학 용어를 숙지한다고 하여 〈무문관〉의 공안이 모두 해독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공안을 있는 그대로 해독해 가는 과정에서 들뢰즈의 용어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그렇기에 공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듣고, 분별을 해체하며 무분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조심스럽게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톺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화두를 잡고 풀어 가는 과정은 올바른 사유(正見)를 얻는 과정이다. 〈무문관을 사색하다〉는 학자가 사유로 천착해 이룬 정견의 결과물이다.

부처의 무량 자비심, 만다라로 만나다



태장만다라
법현 스님 글·그림
운주사/ 10만원

만다라(Maṇḍala)는 어원상으로 보면 '본질을 갖추는 것' 또는 '제법(諸法)을 구족(具足)하는 것'으로, 이는 부처님의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 즉 '가장 높은 깨달음'의 본질을 얻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만다라는 밀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내면세계 혹은 부처의 법신(法身)인 진리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데 사용하는 수행 방편으로, 특히 티베트와 일본, 중국에서 크게 성행했으며, 우리나라도 후불탱화로 전해져 오고 있다.

밀교의 대표적 경전은 〈대일경〉과 〈금강정경〉인데, 태장만다라(胎藏曼荼羅)는 〈대일경〉을 근거로 하고 금강계만다라는 〈금강정경〉을 근거로 한다. 이 둘을 양부만다라 혹은 양계만다라라고 하며, 태장만다라는 이(理)의 세계를 금강계만다라의 지(智)의 세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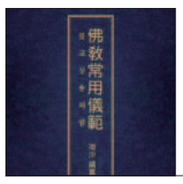
태장만다라는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을 중심으로 12대원이 순차적으로 중심에서 사방팔방의 바깥쪽으로 퍼져 나가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대일경〉에서 설하는 이론에 따른 것이다. 대일여래는 근본불(法身)로서, 태양의 빛과 같은 지혜의 빛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대자비가 무량하게 펼쳐지는 것을 나타내며, 중생의 생명력을 상징한다.

태장(胎藏)이란 태아가 모태(母胎) 안에서 갈무리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즉 인간의 모성(母性) 원리를 발상으로 해서, 인간과 우주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갈무리하여 태어나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도상화한 것이 태장만다라이다. 모태에는 생명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듯이, 부처의 중생에 대한 무량, 무한한 자비심을 모태에 비유한 것이다.

안산 법륜사에 주석하면서 실담자 사경 지도를 하고 있는 실담 법현 스님이 지은 〈태장만다라〉는 '태장만다라'에 등장하는 412분 존상(尊像, 불보살·명왕·천왕·천신 28수·축생·아귀·중생)을 직접 그려 모시고 각 존상마다 진언(眞言, mantra), 밀호(密號), 지물(持物), 수인(手印), 종자(種字) 등을 부여하여 해석을 달았다. 이를 통해 중생들이 근기(根器)에 맞게 수행하여 깨달음으로 가도록 엮었다.

신중일 기자

예불부터 재까지… 사찰 의식 총망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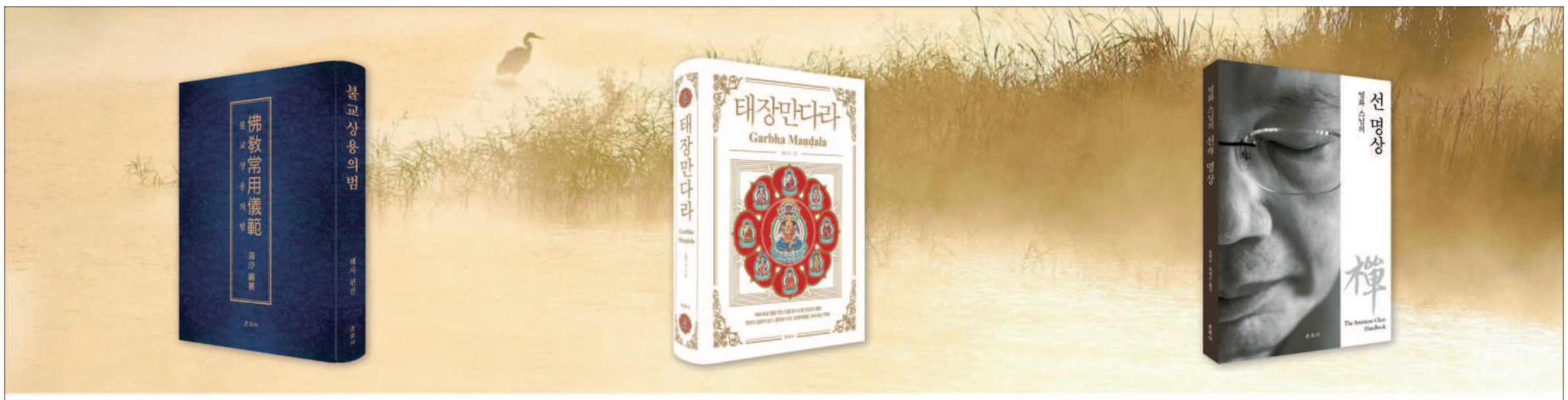
불교상용의범
해사 스님 편찬
운주사/ 5만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인 해사 스님이 편찬한 〈불교상용의범〉은 사찰 일상 의식부터 재 의식까지를 총망라한 의식집이다. 사찰에서 전통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상용의범을 중심으로 하되, 전래되는 각종 의식문들을 참조해 수정·보완했다.

책은 크게 △일상의례 △제반의식 △상주권공재 △청문(각단불공) △시식 및 영반 △부록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일상의례는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거행하는 조·석예불과 사시마지, 각단 예경의식을 수록했고, 제반의식은 천도재나 각종 재회 시 설행되는 의식문을 수록했으며, 상주권공재도 재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다. 청문에서는 미타청부터 가람청까지 각단의 불공의식문을 수록했고, 이후 화엄시식을 비롯한 각종 시식과 영반을 담았다. 부록편에서는 석탄일, 성도일, 열반일, 백중 등 불가에서 중요한 날들에 행하는 사명일대령과 시식, 설법의식, 방생의궤 등을 수록했다.

〈불교상용의범〉은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는 오백나한청문을 복원해 오백나한을 모신 도량에서 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행 청문(각단불공)과 시식문 중 누락된 부분이나 필요한 내용을 복원·증보하는 등 현재 의식 중 보완할 부분을 새로 수정한 것도 특징이다. 신중일 기자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설행하는 재 의식 총망라!
불교상용의범
조석예불과 사시마지, 각단 예경의식, 천도재나 각종 재회 시 설행되는 제반의식문, 각단에 올리는 불공의식문, 각종 시식과 영반 등 누구나 편리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편찬!
해사 편찬/사륙배판/양장/696쪽/값 50,000원

『대일경』에 근거한 태장만다라의 412분 존상을 재현!
태장만다라
중대팔엽원부터 외금강부원까지 12부원을 도상화하고, 412분 존상에 대해 의미와 형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진언과 실담 범자, 종자, 수인, 삼매야형 등을 부여.
법헌 글 · 그림/사륙배판/양장/688쪽/값 100,000원

혼자 명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
영화 스님의 선 명상
초심자를 위해 기초적인 앉는 자세부터 경험 있는 수행자를 위한 기본 마음가짐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명상 안내서이자 지침서'이다.
영화 스님 지음, 윤희조, 박재은 옮김/신국판변형/무선/244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윤회 관련 연구 집대성하다



윤회
로저 잭슨 지
윤희조 옮김
운주사
2만5000원

불교의 중요 개념인 '윤회' 고찰
역사적 맥락서 윤회관 변화 살펴
향후 윤회사상 나아갈 길 모색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티베트 불교의 '육도윤회도' 사진=화정박물관 페이스북 갈무리

최근 웹툰과 웹소설들의 소재적 트렌드는 '전생'이나 '환생'이다.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꿈과 소원을 환생이나 전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다는 현세대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지만, 전생과 환생이라는 개념 모두 욕망과는 거리가 있는 불교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기실, 불교도들의 궁극적 목표는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성불한다는 것은 곧 윤회를 끊어낸 자리인 것이다. 당연히 불교에서 '윤회'는 절대적인 전제, 진리 그 자체이다. 따라서 '윤회'는 불교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불교는 윤회를 주장하는 가장 잘 알려진 전통 종교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윤회사상에 대한 불교적 접근 방식의 역사와 범위는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현대사회의 불교도 중에는 윤회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리처드 헤이즈 같은 학자는 불교가 버려야 할 첫 번째 가르침은 "마음을 둔하게 하고 논리적인 기능을 손상하고 방해하는 업과 윤회에 대한 교리"라고 한다.

50년 간 티베트 불교를 연구해 온 로저 잭슨 미국 칼던 대학 명예교수의 저작 〈윤회〉는 불교의 중요 개념 중 하나인 '윤회'에 대해 총괄적으로 조명한 연구서다.

실제, 윤회는 불교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이미 인류는 많은 문화 안에서 다양한 윤회관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은 인류사 속의 윤회관을 살핀 뒤 불교로 관점을 좁힌다. 이후 붓다의 윤회관을 고찰한 뒤, 역사적 흐름, 지역적 구분에 따른 윤회관의 변화와 핵심을 살핀다.

이 책은 윤회의 가능성 자체에 대한 질문, 옳고 그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책은 다만 '윤회'라는 핵심적 주제에 대해서 2000년 이상 이루어진 불교의 광범위한 담론을 조사하고, 체계화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이론적 측면에서 윤회 연구를 집대성한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자인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육도, 나아가서 십법계가 온처계와 더불어 불교의 우주론이라고 한다면, 깨달음과 우주론은 윤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중요한 주제가 되는 윤회에 대해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불교학자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고 밝혔다.

클래식, 붓다를 만나다



클래식, 경계를 넘어
김준희 지음
자유문고/ 2만원

두 쪽으로 갈려 있는/ 이 잎은 본래 한 몸인가?/ 사람들에게 하나로 보이는/ 이것은 본래 두 개인가?/ 이런 물음을 궁리하다가/ 나 참 뜻을 깨달았다/ 그대는 내 노래에서 역시/ 내가 하나이며 또한 둘임을 느끼지 않는가?

김준희 피아니스트의 〈클래식, 경계를 넘어〉는 괴테의 〈서동시집〉에 수록된 '은행나무'의 일부를 인용하며 시작한다. 페르시아 시인 하피즈에게 영감을 받아 집필한 괴테의 유일한 단행본 시집에서 저자는 붓다가 설한 불이(不二) 가르침을 봤다. 클래식과 불교를 융합하는 독창적 해석을 내보인 이유도 이 같은 관점에서 기인할 것이다.

〈클래식, 경계를 넘어〉를 관통하는 2가지 키워드는 '클래식'과 '붓다'이다. 이를 좀 더 확장하면, 기독교와 불교일 수도 있고, 음악과 종교일 수도 있으며, 서양과 동양일 수도 있다.

언뜻 보기에 쉽게 어울릴 수 없는 조합으로 보이지만 저자는 이런 편견에 과감히 도전한다. 오히려 이 둘이야말로 가장 잘 어울리는, 동질의 것임을 설파한다.

클래식은 태생적으로 기독교와 분리될 수 없으며, 붓다의 생애 또한 종교로서의 불교와 분리될 수 없다. 하지만 종교적 색채를 걷어내고 보면, 이 둘은 인간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삶을 살찌우고, 감동을 주며, 보편성을 지향하고, 진리의 세계로 인도한다.

프랑스의 작가 발자크가 "음악이라는 언어는 음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상념, 혹은 우리들의 지성에 어떤 심상을 일깨워 준다"고 음악의 역할을 말했듯이, 붓다 역시 죽비 같은 가르침으로 집착에 사로잡힌 중생의 망념을 일깨운다.

저자는 붓다의 일생을 따라가며, 그에 어울리는 클래식 음악을 설명한다. 즉 붓다의 탄생부터 출가, 수행, 깨달음, 교화, 열반에 이르는 삶의 여정과 가르침, 그리고 저자가 가려뽑은 클래식 작품들에 대한 설명과 작곡가의 에피소드를 만날 수 있다.

이처럼 이 책은 붓다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클래식 음악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엮은 23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덧붙여 간결하고도 친숙한 현대 '미니멀리즘' 음악과 불교의 만남도 소개하고 있다.

경계는 우리가 그어놓은 선에 불과하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그렇게 선을 넘는, 경계를 넘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는 피아니스트인 저자가 클래식을 통해 세상을 보는 방식이기도 하다.

매 챕터마다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한 것도 눈길을 끈다.

신중일 기자

한국건축서 찾은 '불조심 인문학'



불 마귀를 제압하라
서경원 지음
담디
2만1600원

한국건축의 특징은 나무와 흙으로 지은 목조건축이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가장 취약한 것이 화재다. 전쟁 등을 이유로 사찰과 사원, 궁궐이 전소됐던 것은 목조건축이라서다. 화마라는 재액을 막기 위한 여러 상징체계들이 문화유산과 기록 속에 들어있다.

통도사는 매년 단오절에 소금단지를 차려 놓고 구룡지에서 용왕재를 지낸다. 이 소금단지들은 모든 사찰 전각의 처마 밑 사방 기둥머리에 올려진다. 소금은 바다를 상징하고 바다는 부처님의 진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직접 동해 바닷물을 떠다 용왕제를 지내기도 했다. 물의 신 용왕님이 화마를 막아 물리쳐, 부처님을 모신 사찰의 금당들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다. 바로 대광명전의 평방에 붙어 있는 '항화마진언(抗火魔眞言)'이다.

"우리 집에 손님이 한 분 계시니/ 바로 바닷속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입에는 하늘을 삼킬 만한 큰물을 머금고 계시니/ 능히 불 마귀를 막아 제압하실 분이다.(吾家有一客 定是海中人 口呑天漲水 能殺火精神)"

화마로부터 해인사를 지켜내려면 불을 불러오는 남산제일봉의 화기를 억눌러야 했다. 이를 위해서 해인사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로 산의 이름을 바꿨다. 앞산의 불기운을 아예 땅속에 파묻어 버린다는 "매화산(埋火山)"으로 개명했다. 두 번째로는 대적광전을 중건할 때, 전각의 축을 불의 산인 남산제일봉을 피해 서쪽으로 틀어지었다. 세 번째는 지금도 매년 단오절에 사찰 경내와 남산 꼭대기에 소금단지를 묻어 화기를 제압하는 방책을 세운다.

이 같은 화마를 막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들을 저자는 〈불 마귀를 제압하라〉를 통해 풀어낸다. 화마를 막기 위한 상징체계와 그 의미를 되짚는 저자의 이야기를 좇는 것이 이 책을 읽는 재미다.

신중일 기자

박물관 디자이너가 본 살아있는 옛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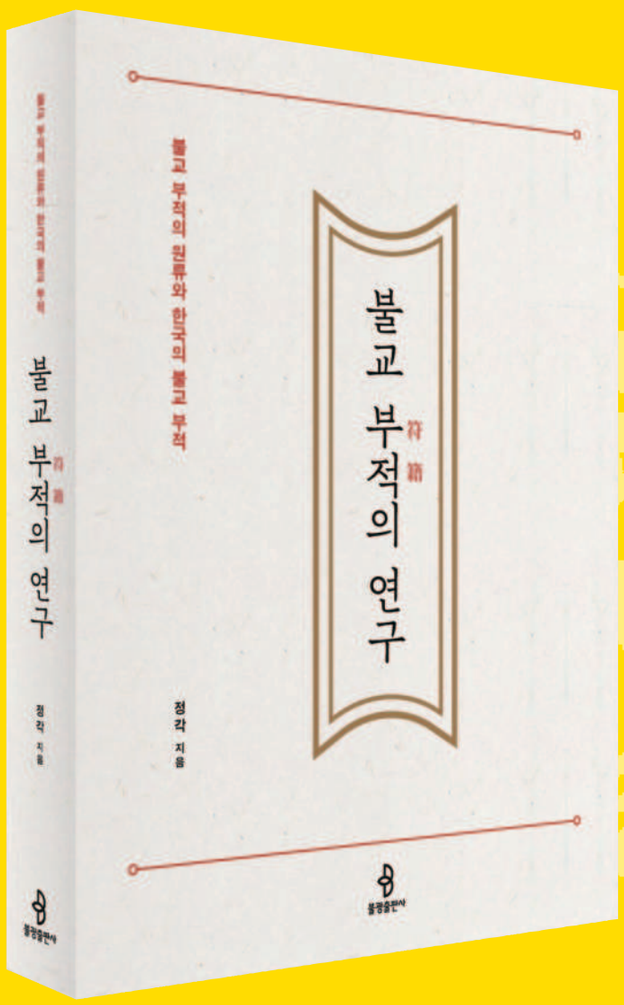
박물관에서 서성이다
박현택 지음
통나무
1만9500원

저자 박현택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디자이너로 30여 년간 일하고 정년퇴직했다. 그의 저작인 〈박물관에서 서성이다〉는 전통문화유산을 디자인적 관점에서 '새롭게 다시보기'를 제안하고, 시대를 넘어 지켜야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한다. 또 디자인의 이념과 표현이 어떻게 변해왔고, 어떻게 시대정신을 반영해왔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디자이너인 저자는 이 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예술과 디자인 사이에서 진화하는 바람직한 디자인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한 것을 독자와 공유한다. 매 꼭지마다 시대적 배경과 소재는 달라도 책 전체에 디자인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스며있다. 이를 통해 잘 디자인된 것들만이 가치 있는 문화재로 남게 됨을 역설한다.

저자는 "박물관의 안과 밖에서 서성서성 배회했다"고 한다. 박물관에 간 디자이너가 박물관의 주역이 아닌 주변인이나 경계인이었음을 자처하고 있다. 스스로 객관적 시각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박물관'과 '디자인'을 넘어 객관적 관점을 유지하려는 저자의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 이 책은 나열식 지식전달이 아닌, 감성과 직관의 도움을 통해 독자에게 사물과 예술을 느낄 수 있는 시각을 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불교 부적의 원류와 한국의 불교 부적
불교 부적의 연구 符籍
정각 지음
496쪽 | 올컬러
35,000원

왕생과 성불의 염원을 담은 불교 부적,
그 원류와 역사를 좇는 거대한 여정!

오늘날 미신 혹은 민간신앙의 산물로 여겨지는 부적.
부적은 정말 '불교의 정법(正法)'과 무관한 것인가?

돈황 자료 및 대장경에 실린 불교 부적,
그리고 고려·조선에 통용된 우리 불교 전통 부적까지,
그 역사의 흔적을 발굴해내는 단 하나의 책!

"부적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소박한 염원을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제대로 알고,
이 부적 문화를 새롭게 일구어 나간다면 한류의 흐름에 아름다운 꽃잎을 더하게 될 것이다."

_ 남은당 현봉 대선사(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지상백고좌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경일 대종사

“금강경 10만독 정진 중… 불가능은 없다”



법산 스님은… 덕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1년 수계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과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동국대 교수로서 평생 연구와 후학양성에 진력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을 맡아 학교 발전에 진력했으며 현재는 법계위원장으로서 조계종 법계를 총괄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지종가(佛之宗家) 국지대찰(國之大刹)이며 세계문화유산 도량인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았다. 인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축산은 언제나 부처님 품과 같이 포근하고 따뜻하기만 하다. 곳곳을 장엄한 연등과 산중에 고개를 내민 새 생명들이 어우러진 영축산은 그야말로 화엄세계다.

수백 년 수령의 나무들이 어깨를 맞대고 춤을 추는 무풍한송(舞風寒松)길을 지나 역대 조사들을 모신 부도전을 거쳐 일주문을 통과해 절 안으로 들어갔다. 평일이었지만 절을 찾은 불자와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탑처럼 쌓였던 공양간 비빔밥이 순식간에 동이 나는 것을 보며 ‘역시 통도사’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2~30명씩 단체로 한국의 최고 사찰을 찾은 동서양 외국인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언제나 좋은 절, 통도사

적멸보궁을 참배하고 시탑전(侍塔展)을 찾았다. 시탑전은 통도사 계곡 건너 사자목 5층 석탑 아래 위치한 원로스님들의 거처다. 시탑전 3호실의 방문을 두드리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들어오세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관세음보살~”

‘해방둥이’로 올해 팔순을 맞은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경일 대종사가 천진불의 미소를 보여준다.

건강을 여쭈는 질문에 “사람들이 나만 보면 무슨 화장품을 쓰냐고 묻는다. 세수도 자주 안 하는데, 내 얼굴이 좋긴 좋은 모양이다”고 환하게 웃는 법산 스님은 ‘언제나 청춘’의 모습 그대로다.

스님의 미소 너머로 액자가 하나 보였다. ‘일륜교결 만리등광(一輪皎潔 萬里騰光)’.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글씨다. ‘둥근 보름달이 밝고 맑으니 만리에 빛을 비춘다’는 의미로 성파 스님이 법산 스님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한다.

“산중에 종정스님이 계시니 모든 것이 여법(如法)합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150여 대중이 함께 공양을 합니다. 종정스님부터 사미까지 다 같이 모여서 해요. 공양을 하는 그 모습만 봐도 절로 신심(信心)이 나죠. 성파 스님이 종정에 추대되시고 ‘상요청규 필순화목 보리군생(常要淸規 必順和睦 普利群生)’을 교시로 내리셨습니다. ‘어느 때나 청규를 굳게 지키고 모름지기 대중과 화합을 이루며 널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영축총림 대중들은 항상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법산 스님은 “통도사만큼 좋은 절이 없다”고 말해왔다. 왜 좋은지 다시 여쭈었다.

“여기 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어른들을 모시고 산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어요. 많은 대중스님들과 살면 서로의 거울이 되어 줍니다. 더불어 소통하고 서로의 수행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수행의 반은 대중들이 만들어준다고 하잖아요.

역사적 맥락을 보면, 신라 자장 율사가 구법(求法)을 위해 방문한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고 부처님 진신사리와 가사를 모셔와 통도사에 모셨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탑을 조성하고 금강계단을 설치했어요. 계단을 설치한 것은 사찰이 계율(戒律)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오대산이 화엄도량이고 자장 스님 역시 〈화엄경〉을 공부해서 법을 펼치셨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계율이 있었습니다. 승단의 기강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영축총림 통도사는 그 존재이유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통도사는 계율도량입니다. 계율은 승단의 근본 당체입니다. 계율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계율을 바탕으로 선정에 들어가 반야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함께 이뤄져야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유교경〉에서 부처님은 ‘내가 설사 없더라도 계(戒)를 스승으로 삼아 잘 지키면 내가 살아있는 것과 같으니, 부디부디 슬퍼하지 말고 오직 계를 스승으로 삼아 열심히 공부하라. 너희가 계를 지키지 못하면 내가 천년만년 살아있더라도 소용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계위사(以戒爲師)의 가르침이죠.

2001년 생일, 금강경 10만독 발원
매일 새벽 4시 기상… 경전 독송해
‘응무소주 이생기심’ 전환 이루고파

출가자, ‘출가 초심’ 항상 되새겨야
지계는 ‘출가자 마음 속 지주’ 같아
재자자는 보현행원품 보며 공부하길

영축총림 통도사는 창건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율을 중시하는 도량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선지식들에게 공부를 배우는 기쁨

법산 스님의 ‘영축산 애정’은 변함없었다. ‘어른’으로서의 안목도 여전했다. 법산 스님은 “출가 후 훌륭한 어른들에게 법(法)을 배울 수 있었던 복(福)을 누렸다. 그 어른들에게 감사할 뿐”이라고 회고했다.

법산 스님은 1945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열다섯 살에 남해 화방사에서 출가했다. 가난했던 소년은 절에 가면 공부할 수 있다는 말에 머리를 깎았다. 어린 스님은 남해 망운암에서 고시공부하는 형들에게 묻고 또 물어가며 중고등 과정을 마쳤다.

“중학교도 못 갈 정도로 가난했어요. 제가 공부하고 싶어 하니까 할머니가 절에 가면 공부할 수 있다며 권하셨어요. 스님들이 경전 공부하는 걸 보신 거죠. 염불하는 법, 종치는 법 등 불교 생활과 의식을 다 한문으로 배웠는데, 배우는 게 재미있어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당시 남해에는 검정고시를 치를 곳이 없어서 경남 고성으로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때 고성 옥천사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곳 스님들 가운데 마산대학(지금의 경남대학교) 출신이 많았어요. 전신이 해인사에서 세운 해인대학이라 영남지방스님 대부분이 여기를 다녔죠. 저도 자연스럽게 마산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1967년 마산대학 재학 당시 서경수 동국대 교수와 인연이 됐다. 서경수 교수가 마산대학 특강을 왔다가 범어(산스크리트어)를 잘하는 법산 스님을 보고 동국대 편입을 권했고, 동국대로 옮긴 스님은 범어로 된 대승경전을 줄줄 욀 정도로 공부에 전념했다.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탄허 스님에게 〈사서삼경〉을 비롯한 동양철학 전반을 배웠다. 박사과정을 마치고는 동국대서 강사로 강단에 섰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부족함을 느껴 인도철학을 더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도 유학을 결정하고 탄허 스님에게 인사드리러 갔더니 ‘불교를 공부하려면 중국이 좋다. 대만으로 가라’고 하셔서 바로 방향을 바꾸었지요.”

스님은 1980년 9월 대만 중국문화대학 철학연구소에 입학, 6년간 공부했다. 공부는 재미있었고 하루하루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학업에 전념했다.

13면에 계속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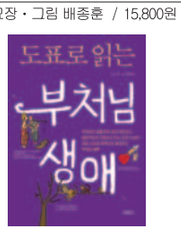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지상백고좌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경일 대종사

“부처님오신날, 우리 모두 ‘極樂’으로 가자”

〈극락〉

12면에 이어

연등을 밝히는 건, 마음 밝히는 것
극락, 과거 · 현재 · 미래도 기쁜 세상
삼독심을 털어내고 밝음의 세상으로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는 법산 스님.



법산 스님이 적멸보궁을 참배하고 있다.

“전 스승 복이 많아요. 덕산 스님에게 염불을 배웠고, 경봉 스님에게 참선을 배웠습니다. 경봉 스님께서는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달으면 ‘호쾌대활(好快大活)’의 삶, 호쾌하게 웃어크게 살아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호쾌대활의 경지가 되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스님께서 참선의 가장 중요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문은 김동화 교수를 통해 알게 됐다. 유식과 법화사상을 전공한 김동화 교수는 팔만대장경이 머리에 다 들어있는 석학이었다. 책상에는 항상 〈선문염송〉을 두고 읽었고, 비구스님보다 더 열심히 정진했다. 법산 스님은 “학문하는 자세를 알려주신 분”이라고 술회했다.

한국불교 대강백 중 한 명인 탄허 스님께는 〈사서삼경〉과 노장, 장자를 배우며 유불선(儒佛仙) 삼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만 중국문화대학에 가서는 ‘선학의 황금시대’란 당대 베스트셀러를 쓴 오경웅(吳經熊) 교수를 만나 중국 선학을, 대만 푸런(輔仁)대학 총장인 로깡(羅光) 신부에게 중국 고대철학사상을 배웠다. 대만의 선지식인 인순 법사와 불광산사 성운 스님과의 교류는 세계 불교 전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법산 스님은 “이런 어른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국 간화선의 원류인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사상적 뿌리라 할 수 있는 중국 선과 화엄사상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보조국사 지눌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스님은 1986년 3월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법산 스님은 동국대에서 후학양성에만 진력하지 않았다. 포교와 전법을 놓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애인 포교. 벌써 30년이 훌쩍 지났다.

“1988년 수화를 배우며 광림사 연화복지원과 인연을 맺었는데, 지금도 매달 이분들을 만나 법문하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수화음악회도 열고, 시청각장애인 송년잔치도 하고, 점자로 경전도 만들었어요. 눈이 어둡고 귀가 멀었더라도 지금 생에 잠깐 그런 것이지 본래 성품까지 그런 것은 아니다, 덜 보고 덜 듣는 만큼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다음 생에는 부처님 세상에서 환한 눈과 밝은 귀를 갖고 태어나자고 이야기해 줍니다.”

‘금강 행자’로 사는 즐거움

법산 스님은 수행에도 집중하고 있다. 선교율(禪敎律)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평생의 소신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어려서부터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독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음기도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상당한 시간 동안 독송을 했고 그 다음에는 ‘보현행원품’을 읽었습니다. 경봉 스님, 성철 스님, 광덕 스님도 ‘보현행원품’ 공부를 강조하셨습니다. ‘보현행원품’을 하면 신심을 더 돈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만 유학 중에는 6년간 매일 보현행원품 독송을 했습니다.

보현행원품 독송을 하면서 동시에 〈금강경〉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보조국사가 바로 〈금강경〉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조국사는 〈육조단경〉과 〈화엄경〉 ‘여래출현품’을 읽다가 좋은 체험을 했고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대혜종고 스님의 어록을 보고 구경각에 이르렀습니다. 그전에는 마치 돌이 풀을 덮고 있는 그런 느낌 같았는데 상무주에서 확철대오하게 됐습니다. 그 후 송광사에서 행화를 펼치면서 대중들에게 참선과 함께 〈금강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법산 스님은 1986년 3월 1일 동국대 교수로 부임한 뒤 매일 한 차례씩 〈금강경〉을 독송했다. 그러다 2001년 11월 〈금강경〉 10만독을 발원했다.

“그때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제자들이 불러서 갔더니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더라고요. 함께 촛불을 끄고 제자들과 부처님께 이번 생에 10만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법산 스님은 〈금강경〉 독송 공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먼저 강조했다.

“〈금강경〉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 불교 수행의 지침서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장경 가운데서 가장 많은 주석서(注釋書)나 번역서가 나왔다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오묘한 반야의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 번역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독송되고 연구되는 것은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입니다. 금강(金剛)이란 보석 중에 가장 강하고 투명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라는 뜻이며, 반야는 밝고 맑은 근본 지혜를 뜻하며, 바라밀이란 언덕의 뜻이며, 경이란 진리의 말씀이란 뜻이므로 ‘가장 강하고 밝은 지혜의 언덕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을 독송하면 신심이 다이아몬드처럼 돈독해지고 마음에 맑고 밝은 지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마음의 헛된 망상을 비우는 수행이 담겨있기 때문에 독송하면 전생의 죄업이 소멸하고 마음이 깨달음의 지혜로 밝아지게 되므로 마음이 편안하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하여 어떤 상(相)에도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인욕행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계(戒)를 받아 지키고 복을 지어 신심을 일으키므로 모든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 전체에서 〈금강경〉이 차지하는 비중을 잘 알고 있던 법산 스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독송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속도는 빨라지지 않았다.

“교수 재직 중에는 바쁘다 보니 1년에 500~600번밖에 못 읽었어요. 어느 날 한 제자가 ‘하루에 한 번씩 하면 10만 번 읽는 데 30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높였어요. 학교에 있을 때는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생각만 가졌습니다. 못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하하. 연구년 때 지리산 벽송사 선원에 방부를 들여 정진을 하면서 독송을 했고 정년퇴직 이후 들어간 백장암 선원에서는 낮에는 참선을 하고 아침과 저녁 공양은 하지 않고 오직 〈금강경〉 독송만 했습니다. 백장암에서 있었던 6년 동안 2만독 이상을 한 것 같아요.”

통도사 시탑전에서도 독송은 계속되고 있다. 새벽 4시 일어나서 6시 아침 공양 전까지 3번의 독송을 한다. 공양 후 원로스님들과 차담을 하고 다시 독송을 한다. 11시 30분 점심공양 후에도 〈금강경〉 독송은 이어진다.

“요새는 하루에 10~15번 정도 독송을 합니다. 지난 1월 9일에 7만독 회향을 했습니다. 4월까지 1300독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육조 혜능 스님은 〈금강경〉을 인연으로 불교에 입문해 큰 스승이 됐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을 듣고 대전환이 일어나 오조 홍인을 찾아갔습니다. 저 역시 〈금강경〉 수행을 통해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불교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시종일관 유쾌했던 법산 스님은 자신의 공부뿐만 아니라 후학들의 공부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출가 수행자들은 첫째, 초심(初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출가할 때 초심 말입니다. 발심(發心)의 마음, 발보리심(發菩提心)의 마음이 바로 초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심은 계율 정신으로 이어지는 ‘내 마음속의 지주’ 같은 것입니다. 계율 정신을 잃어버리면 게을러지게 되면서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초심과 지계(持戒)의 마음을 먼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부처님 경전을 계속 섭렵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탐진치(貪瞋癡) 삼독심(三毒心)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삼독심이 싹 떨어져 버리는 돈오돈수(頓悟頓修)의 상태가 됩니다. 명심오도(明心悟道) 즉, 마음을 밝혀 깨달아서 다시 그 깨달음의 밝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입니다. 앞으로도 분별심 없는 자세로 정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재가불자들은 평소 ‘관세음보살 보문품’과 ‘보현행원품’을 보면서 신심을 다잡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한 인터뷰가 점심 공양 시간까지 이어졌다. 시탑전에서 공양간으로 찬찬히 자리를 옮겼다. 최근 다리가 불편해진 스님이 한걸음 한걸음 씩씩하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경내를 장엄한 연등을 보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설명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깨우쳐 정토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초파일에 등을 밝히는 것은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천년만년의 어둠도 이 등불 하나면 바로 사라집니다. 탐진치 삼독의 어둠은 등불과 함께 없어집니다. 삼독의 어둠을 털어내고 밝음의 세상에서 모두가 함께 극락세계로 가면 좋겠습니다. 다할 극(極) 즐거울 락(樂), 극락은 오직 기쁨만 있는 세계입니다. 과거도 기쁘고 지금도 기쁘고 미래도 기쁜 세상을 향해 같이 갑시다.”

스님의 간곡한 당부가 통했는지 영축산에 봄바람이 스친다. 연등이 춤을 추고 모두가 흥에 겨우니 매일매일이 부처님오신날이고 날마다 좋은 날이다.

유철주 / 작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⑨ 강화 전등사

▶한줄 요약
불교 탄압에서도 추송 스님 같은 법력을 가진 스님의 가르침에 많은 이들이 감동하였다면, 그때 그러한 시대 분위기가 은행나무를 통해 전해졌을 수 있다.



불교 탄압에 은행나무마저 열매 안 맺었다

성문(城門)이 산문(山門)이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남단 정족산 삼랑성(三郎城) 안에는 전등사(傳燈寺)가 있다. 이 절은 381년(고구려 소수림왕 11)에 아도화상이 진종사(眞宗寺)로 창건하였다. 물론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1282년(고려 충렬왕 8)에 왕비인 정화궁주가 옥등(玉燈)을 시주하였기에 전등사로 사명이 바뀌었다. 전해지는 이야기다. 오히려 불법(佛法)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전해진다는 의미에서 전등사로 보는 것이 어떠한지.

삼랑성의 원래 이름은 정족산성(鼎足山城)이다. 세 발 달린 솥을 엎어놓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삼랑성으로 더 많이 부른다. 단군은 외부의 침입을 막고자 정족산에 산성을 쌓으려 하였다. 성 쌓기는 대규모 공사였다. 이에 단군은 세 아들에게 성 쌓기를 의논하였다. 세 아들은 그 뜻을 받아들여 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시작하고 보니 전국에서 체격 좋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나타나 함께하였다. 그들은 주변 산에 있는 큰 바위를 주먹으로 쪼개 적당한 돌로 만들어 이쪽 산으로 던졌다. 그 돌은 하나하나가 들어맞아 성벽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한 달도 되지 않아 산성이 완성되었다. 단군은 장사들에게 두터운 인사를 베풀고 세 왕자에게는 정족산의 봉우리를 각각 하나씩 안겨주고 성을 지키도록 하였다. 세 왕자가 성을 쌓고 세 봉우리를 지킴으로 이 성을 삼랑성이라 부르게 되었다.

전등사에는 일주문 등의 산문(山門)이 없다. 삼랑성의 동문과 남문이 전등사의 산문인 셈이다. 성문을 통해 300m쯤 약간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 대조루다. 대조루를 지나면 대웅보전을 비롯한 여러 전각이 있다. 관음전, 약사전, 명부전, 종루, 삼성각, 정족사고 등이다. 무엇보다 근래 지은 무설전은 꼭 참배하기를 권한다. 그곳에는 오늘날 여자 아이돌 가수를 닮은 보살상을 모셨다.

현재 보물로 지정된 범종도 자세히 살펴보기를. 가령 한국 종은 꼭대기 부분 장식인 용뉴에 용 한 마리가 있지만, 전등사 범종은 두 마리다. 중국 종이기 때문이다. 원래 1097년 하남성 백암산 숭명사에 봉안된 범종이었다. 여기엔 사연이 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자 전등사 주지스님은 일제가 무기로 만들고자 빼앗아 간 전등사 범종을 찾고자 하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천 항구를 뒤지고 다녔다. 그때 누군가가 부평 군기창 뒷마당에 큰 동종이 하나 있다고 알려주었다. 가서 보니 전등사 종은 아니었다. 스님은 범종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전등사로 운반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 중국종이 몇 있으나 그중에 가장 우수한 것으로 꼽는다.



전등사 범종. 국내에 있는 중국 종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꼽는다.



대웅보전 처마 밑 나부상. 사람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이다.



전등사 은행나무. 열매를 맺지 않는 은행나무로 잘 알려져 있다.

대웅보전 처마 밑 조각상은?

'코끼리를 생각하지마' 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전등사 대웅보전 처마 밑의 조각상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이 알려져 있고, 전등사 홈페이지에도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이기에 다른 각도로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언급할 수밖에 없다.

대웅보전 처마 밑에는 독특한 조각상이 있다. 누군가 벌거벗은 채로 쪼그리고 앉아 손과 머리로 추녀를 받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모습 때문에 벌거벗은 여인으로 보는 이야기가 많이 퍼져있다. 이는 대웅보전 불사를 맡은 도편수와 아랫마을 주막 주모 이야기다. 주모와 정분이 난 도편수는 불사를 마치면 주모와 혼인할 예정이었다. 그리하여 번 돈을 모두 주모에게 맡겼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 갈 무렵 주모는 맡겨 둔 돈을 가지고 달아나 버렸다. 화가 난 도편수는 처마의 네 모퉁이에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여인상을 만들어 놓았다. 주모가 대웅보전 불경 소리를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고하는 뜻에서 만들어 올렸다고 한다. 혹은 울분을 참지 못한 도편수가 앙갚음하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거운 처마를 들고 있게끔 형벌을 가했다고도 한다.

단군 세 아들이 쌓은 정족산성
일주문 대신 동문 · 남문이 산문
은행 20가마 공물 강요한 관가
3일 기도 이후 괴롭힘 사라져

절집 문화를 아는 이들은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법당 불사 과정은 또 하나의 수행 과정이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불사에 임한다. 그런데 어찌 도편수가 주막집을 드나들면서 주모와 정분이 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자비를 강조하는 절집에서 앙갚음으로 만든 나부상을 법당 처마 밑에 올려놓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왜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지는 의문이다.

한편으로는 이 조각상을 사찰을 수호하는 신장(神將)으로 본다. 가령 법주사 팔상전에도 이와 비슷한 조각상이 있다. 팔상전 처마 밑에 있는 형상도 옷을 반쯤 벗고 있으며, 쪼그려 앉아 있다. 이를 나찰이라 한다. 나찰은 본디 사람을 잡아먹는 살인귀로 아주 빠르고 포악하며 공중을 날아다닌다. 그러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여 불법을 지키는 신장의 역할을 맡았다. 어떤 이는 원숭이로 본다. 불이 났을 때 빨리 움직여 불을 꺼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을 맺지 않는 은행나무

경내에는 수령이 600여 년 된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다. 각각 노승나무, 동승나무 혹은 암컷, 수컷으로 불린다. 은행나무는 본래 암나무와 수나무가 서로 마주 보고 있어야 열매(은행)를 맺는다. 그런데 전등사의 은행나무는 꽃은 피어도 은행은 맺지 않는다. 사연은 이렇다.

불교 탄압이 심했던 조선 후기, 철종(재위 1849~1863) 때다. 전등사에서는 해마다 공물로 은행 열 가마를 바쳤다. 그런데 어느 해 관가에서 은행 스무 가마를 요구하였다. 이 지시를 듣게 된 동자승은 노스님에게 알렸다.

"스님, 관가에서 정말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허허, 참으로 난감한 일이구나.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미워해선 안 되느니라."

이렇게 타이른 노스님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전등사 은행은 열 가마가 최대 수확량이었다. 다른 곳의 은행은 전등사 은행의 품질을 따라갈 수 없으므로 다른 은행을 구해 채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게 분량을 채우더라도 품질 좋은 은행은 스님들이 다 먹었다고 관리들이 트집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관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더욱 탄압할 것이 분명하였다.

노스님은 백련사에 있는 추송 스님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추송 스님은 도력이 높기로 소문이 자자하였다. 며칠 후 전등사에 온 추송 스님은 노스님 등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튿날 아침 3일 기도가 시작되었다. 곧 전등사 일대에 '전등사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두 배나 더 열리게 하는 기도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추송 스님의 3일 기도를 지켜보았다. 그중에는 관리들도 있었다.

관리들은 노스님에게 시비를 걸었다.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요. 혹시 나라에 공물을 바치기 싫어서 우리를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요?" "기도한다고 어떻게 은행이 더 열릴 수가 있겠소." 비웃는 순간, 관리들은 얼굴을 감싸고 땅 위에 나뒹굴었다. 그들의 눈은 얻어맞은 것처럼 퉁퉁 부었다. 이 소문으로 구경꾼은 더욱 늘어갔다.

드디어 기도가 끝나는 날이었다. 막바지에 이르자 추송 스님은 부처님께 발원하였다. "3일 동안 지성으로 기도한 대중은 앞으로 백 년이고 천 년이고 전등사 은행나무에는 열매가 맺지 않도록 기원하나이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며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였다. 바로 그때 때 아닌 먹구름이 전등사를 뒤덮었다. 그리고 천둥이 치고 우박과 비가 무섭게 내렸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일제히 땅에 엎드렸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을 땐 추송 스님은 물론 노스님과 동자승까지 모두 사라졌다. 사람들은 보살님이 전등사를 구하기 위해 세 분의 스님으로 오셨다고 믿었다. 그때부터 전등사 은행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 이 일을 기이하게 여기며, 이후 관가에서는 전등사 스님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었다.

얼마나 불교 탄압이 심했으면, 경내에 있는 은행나무까지 그 사연을 전하고 있을까.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길. 불교 탄압의 와중에서도 전등사에 훌륭한 스님이 계셨다면, 추송 스님 같은 법력을 가진 스님의 가르침에 많은 이들이 감동하였다면, 그때 그러한 시대 분위기가 은행나무를 통해 전해졌을 수 있다.

〈불교학자〉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다양한 초파일 용품 할인행사중!! 상시대기
최고급 제품&착한가격&친절상담&빠른배송
전품목 10%~30%/승복, 가방 50%/가구, 병풍 30% 할인
최고급 합장주 할인
합장주 ····· 100개 55,000원
어린이합장주 ····· 100개 50,000원
사월초파일 제 품 할 인
인등 신제품 출시, 주문제작 가능
충전 전기초 출시 (1회 충전시 30일 지속, 5종류)
반야심경/산신/용왕/연꽃 일부품목은 제외됩니다 85,000원
● 보시 용품 염줄
● 각종 연등 탄생불 관욕단
● 각종 미니 만월등 100개 ····· 140,000원
● 만월등 사업등
● 연잎 리본
● 방수전선 전구엘리드국산
● 등 승강기 설치
2024 초파일 미리 준비하세요
삼베,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0,000원
돈타래 40개 70,000원
원백 20개 70,00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팝초 20개, 노란색 최상급 20개
소진시까지 ····· 65,000원
5일초 24개 ····· 70,000원
3일초 40개 ····· 70,000원
1일초 90개 ····· 80,000원
15일초 12개 ····· 100,000원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 50,000원
15일 ····· 70,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칠보 개금 할인 (기존 불상 가능, 3자 기준 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 (소불 500불 이상 1불 당 12,000원, 1000불 이상 11,0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054-762-8200 /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2024년 5월 1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82호 | 15 | 전면광고

여러 하늘의 음식과 복이 언제나
변동함이 없게 하고 세상 사람의 수명이
언제나 존재될 수 있게 하며 출입이
자재할 수 있게 하여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18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 · 매가 : 17억2천
- 위치 : 인천 · 부지 : 200평 · 법당 : 60평 · 요사:60평 · 매가 : 1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채권 인수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836번지
- 835번지 임야 130평
- 836번지 밭전 300평
- 총 430평, 샘물 나옴
- 사정상 급양도 2750만원

010-7628-9997

사찰(급)안내

- 장호원 감곡KTX역 10분거리 깨끗한 사찰
- 대지계획관리, 그린시설 1000평
- 대웅전, 종각, 휴게소, 잔디광장
- 요사채3동, 다도실, 리라이트광석찜질방
- 연못, 가온기치료기실, 각종 암환자 치료완비
- 은행 2억대출 매매가 8억 급매매 전세 놓습니다
- 장난전화 사절

010-7151-8546
010-5883-225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주시 주덕읍 (국도 4차선 접)
- 대지 : 631평
- 금액 : 2억 5천

010-2136-9889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 700평 (실사용 1000평)
- 건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향토방 1동
- 해우소 : 1동 차량 진입 (주차장)
-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도량 (명상, 요가)
- 남향이라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
- 땅에서 나는 물 (약수물)
- 금액 : 5억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 광역시 서구 신석로 111번길 3-1
- 2층 : 법당 30평
- 1층 : 요사채 30평
- 지하 : 15평
- 가액 4억원
- 스님 건강상 내놓습니다.
- 도심 속 깨끗한 사찰
- 교통 아주 편리함

010-9286-1008

사찰(급)안내

- 경남 통영시 정량동 840-1 관음정사
- 대지 106평, 건평 50평, 삼존불
- 모든 집기 일체 양도
-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
- 주차장 완비

010-3344-6667

사 찰 안 내

- 매매가 6500만원
- 영천 북안면 약 60평
- 약사불, 조용한 기도처

010-9572-6778
010-9667-4898

사찰(급)안내

- 위 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 임 야 : 2,000평
- 기도방 3개, 산신각, 용궁, 선황, 요사채
- 매매가 : 2억 7천 (가격절충)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4799-9448

사 찰 안 내

-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창원시 마산 합포구 어시장 너른마당
- 50평, 부처님 삼존불 · 칠성 · 신중 · 산신 · 용왕 · 영가단
- 방1 · 화장실 ·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월40

010-4327-86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 대지 : 법당 26평, 요사채 공양간 산신각
- 건물 : 종교부지 300평, 주차장 약 300평, 앞 화단 26평, 631평
- 즉시 법회 가능함 2024년 초파일 즉시 하셔도됨
- 가액 : 6억 9천

010-5519-7711

사 찰 안 내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현재 운영 중으로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 찰 안 내(토굴)

- 위치 : 경북 영덕 동해안
- 대지 : 326평, 40평 건물 2채
- 법당 15평, 공양간 17평, 방 7개, 목욕탕 3, 외부화장실 2
- 용궁당 노천산신 야외석불 지장입불
- 편리한 아파트식
- 가액 : 2억 4천만원 (절충 가능)

010-2008-0377

사찰(급)안내

- 위 치 : 부산 연산동
- 땅값만 받고 양도 합니다
- 대지 124평
- 법당 삼성각 용왕당 호심불(소불)
- 공양간 종무소 스님방
- 가격은 절충

010-7785-5577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

010-3007-561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불국사역 인근
- 대지 : 191평
- 건물 : 45평(법당, 산신, 방, 공양간, 사무실, 화장실(대.소)) 등
- 야외 : 용왕, 탑, 화장실 집기 일체
- 매매금액 : 2억 5천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574-7985

포교원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토마을 능행스님과 함께 떠나는 스리랑카 의료봉사 및 성지순례 안내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의 후원으로 스리랑카 의료봉사를 진행합니다.
스리랑카 최초의 불교병원인 스리랑카 불교건강병원' 개원식과 의료 봉사 및 성지순례를 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기 간 | 2024년 5월29일 ~ 6월5일 (6박 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
-콜롬보(불교건강병원 개원식과 의료 봉사)-인천
의료봉사 및 성지순례 동참금 | 228만원
문 의 | 010-2555-7268 (담당: 정토마을 김은희 간사)

〈스리랑카 불교건강병원 의약품 및 기자재 후원〉
후원물품 | 의료용 침대, 의료용 노트북, 안경테(성인용), 파스, 연고류(상처, 습진, 무좀 등), 회충약, 대형 전기밥솥, 각종 주방용품, 환자용 이불(얇은 이불, 극세사 담요 등)
입금계좌 | 농협 351-1261-5872-73 (재)정토마을

티베트 성지순례 8일

2024년 7월20일~27일 / 8월24일~31일

동참금 | 299만원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샤캬-시가체-체탕-삼예-인천
※순례 신청하신 분에게는 티베트 성지순례를 기록한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수미산)책을 드립니다.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2024년 6월7일 / 7월20일 / 8월24일

동참금 | 520만원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순례 신청하신 분에게는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 책을 드립니다.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82호 | 16 | 전면광고

연상의 여인은 어머니처럼 여기고
중년의 여인은 누이처럼 여기며
젊은 여인은 딸처럼 여겨라.



부처님 말씀 읽기 -《본생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불교 의식 학인 모집

• 영남 범음 범패
• 49재 천도재 사시불공 등
• 북 · 징 · 경쇠 · 요령 · 목탁
• 매주 화요일 오후3시~5시반
• 일반인 수강가능

조은사(경북 경산 시내)
010-5315-3589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점 연구원

• 음력 생일 숫자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로 미래와 과거를 자신 있게 보는 법 전수
• 준비물 없음. 외우는 것 없음.
• 사주 막힘 없이 보는 법 확실히 전수함.

토화사 010-3750-8555

한국빙의퇴마 기 치료연구소

지장대사 원력 단 한번으로 조상 천도
빙의퇴마 · 천병 · 신병 · 우울증 · 불명증 · 가정우환 병명 없이 몸이 아픈 분 상담 환영
010-5152-1222 (정례)

불교무량법계종 (종교법인)

도반 수행자 모집
함께 모여 정진하실 분 찾습니다
위치: 대구시 동구 파계로 22길 7
010-4766-6358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속 · 증여 · 세금 보장자산
(밀착관리/비밀유지)
삼성생명 팀장 오은정
문의 010-9573-418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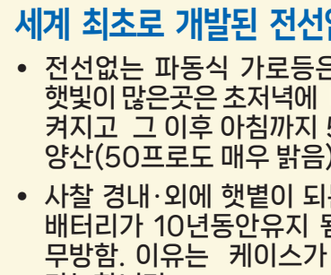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60대 비구니스님입니다.
4월 초파일 행사 불사 도와드립니다
철학 능통
010-9954-2500 해인합장

함께 하실 공양주 모십니다
함께 일할 거사님 모십니다
함께 수행할 행자님 모십니다
부산 만덕사
051-334-3009
010-3840-4355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347-5950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사찰경내외에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장엄등 설치

가야기획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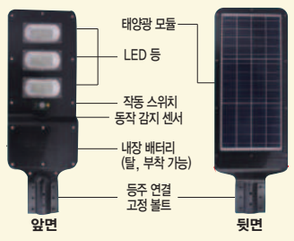
사찰경내 연등 공사



가로등·장엄등



제품 세부 소개



자비연등



칼라연등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 제품건

-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은 전력공급없이 자체발전으로 햇빛이 많은곳은 초저녁에 디밍없이 5시간 동안 매우 밝게 켜지고 그 이후 아침까지 50포 낮게 유지되는 제품 개발 양산(50프로도 매우 밝음)
- 사찰 경내·외에 햇볕이 되는 위치에 매우 유용함. 참고로 배터리가 10년동안유지 됨. 즉 수명이 20년으로 바도 무방함. 이유는 케이스가 ABS 우레탄 코팅고 IP65라 가능합니다.

태양광 등 및 팔각 비닐만월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자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⑨ 물 끓이는 다구에 대해

찻물 끓이는 온도까지 고민했던 조상들

차를 만드는 제다(製茶)에서부터 차를 달이는 행다(行茶)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좋은 찻잎을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좋은 물을 취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물이 좋지 못하면 차의 본성과 색·향·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당대 육우(陸羽), 송대의 구양수(歐陽脩)를 비롯하여 명·청대 수많은 다인들은 좋은 물에 대해 연구하고, 기준을 세우고, 품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끓이는 도구는 완성된 차를 담는 다완만큼이나 중요한 다구라고 할 수 있으며, 시대별 차의 종류나 음용방식에 따라 그 형태나 쓰임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차의 제다와 탕법(湯法)에는 여러 방식들이 존재해왔지만, 그중에서도 당대에는 〈다경(茶經)〉을 지은 육우가 정립한 덩이차(餠茶)의 제다와 그 탕법인 자다법(煮茶法)이 유행하였다. 자다법에는 찻물을 끓이기 위하여 다정(茶鼎)이나 다복(茶鍑), 다요(茶銚)라고 하는 낮고 널찍한 작은 솥이나 쟁개비(냄비)가 사용된다. 당대 염립본(閻立本)이 그린 것으로 전하는 〈소익잠란정도(蕭翼賺蘭亭圖)〉를 보면 자다법에 사용된 차솥의 모양과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이러한 형태의 장점은 물이 끓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기 편하여 적정한 찻물의 온도를 가늠하기에 좋다. 또한 물이 끓으면 여기에 찻가루를 떠 넣은 후 긴 젓가락이나 수저로 휘저어 차거품을 만들고 표(瓢)라고 하는 국자로 차와 차거품을 고르게 떠서 다완에 담아 차를 마시는데, 이렇게 찻물을 휘젓고 국자로 차와 차거품을 떠내기에도 역시나 낮고 널찍한 구조가 편리했을 것이다.

송대에는 당대의 덩이차보다 정밀하고 섬세한 공정을 거쳐 만든 단차(團茶)가 유행하였다. 단차를 음용하는 방식은 점다법(點茶法)으로, 찻물을 끓이거나 끓인 찻물을 다완에 붓기 위해 옮겨 담는 용도로서 주전자 모양의 탕병(湯甁)을 사용하였다. 북송 황제 휘종(徽宗)이 그렸다고 전하는 〈당십팔학사도권(唐十八學士圖卷)〉이나 요·금대 묘 벽화에 그려진 여러 〈비다도(備茶圖)〉, 남송대 유송년(劉松年)이 그린 〈연다도(攆茶圖)〉 등을 통해 점다의 과정에서 탕병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



물을 끓이는 다구인 청동주자. 고려시대에 제작됐다.

시대 거치며 제다, 탕법 변화해
그에 맞는 찻물 온도들도 고려
찻물 끓이는 다두들 맞춰 변모

단차를 점다할 때에는 찻가루를 다완에 넣고, 탕병으로 끓인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수저(茶匙)나 다선(茶筅)으로 빠르게 휘저어 풍성하고 밀도 높은 거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격불(擊拂)을 한다. 점다법에서는 차 거품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정밀함이 요구되는 과정이었던 만큼 찻가루를 넣은 다완에 끓인 물을 옮겨 부을 때에는 여러 번에 나누어서 적정량을 섬세하게 부어야 했다. 때문에 점다를 위한 탕병은 대개 손으로 잡기 편한 손잡이가 있었고, 물이 갑작스레 왈칵 쏟아지지 않아야 하므로 병처럼 늘씬하고 목이 긴 것이 선호되었다. 물이 나오는 주둥이 또한 짧지 않아야 물을 붓는 속도나 양을 조절하기 편리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길고 가느다란 곡선을 이루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이 단차의 조공을 금지(1391)함과 더불어, 명·청대에는 산차(散茶)가 주류의 차종으로 자리하게 된다. 산차는 대개 물을 끓여서 주자 모양의 다관(茶罐)에 찻잎과 끓인 물을 부어 우려낸 후 찻잔에 따라 마시는 포다법(泡茶法)으로 음용한다. 차를 우려낼 물을 끓일 때에는 당대 자다법에서부터 사용된 낮고 널찍한 솥 형태의 다정이나 다복, 다요뿐 아니라 주전자처럼 생긴 탕관(湯罐)을 사용하였다. 탕관은 대개 배가 부풀어 있는 납작한 타원의 몸체에 짧은 주둥이를 지닌 주전자 모양이다. 명대 당인(唐寅)이 그린 〈투다도(鬪茶圖)〉에서 화로 위에 끓고 있는 탕관을 볼 수 있다.

물을 끓이는 다구의 재질에 대해서는 당대 육우의 〈다경〉, 송대 채양(蔡襄)의 〈다록(茶錄)〉, 휘종의 〈대관다론(大觀茶論)〉, 명대 장원(張源)의 〈다록(茶錄)〉 등을 비롯하여 시대별 여러 다서에 기록되어 있다. 황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대개 철과 같은 금속으로 만들지만, 도자기, 돌로도 만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청대에 접어들면 찻잎을 물에 그대로 우려내는 포다법이 유행한 만큼 물의 역할이 전대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져 품수(品水)가 더욱 세분화되었고, 찻물을 끓이는 재료에 대한 구체적인 품평도 늘어난다.

또한 차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탕법이 있었던 만큼, 각 탕법에는 사용하기에 적합한 온도가 있었다. 옛 사람들은 물을 끓일 때에 그 최적의 온도를 가늠하여 알맞은 순간에 차를 달였다. 물이 끓는 모습이 보이는 다정, 다복, 다요는 '게의 눈(蟹眼)', '물고기의 눈(魚眼)' 등으로 표현되는 물방울의 크기와 모양으로 물의 온도를 짐작했다. 그러나 주입구가 좁고 뚜껑이 있는 탕병이나 탕관은 물이 끓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소리로서 물이 끓는 정도를 구분하였는데, 그 소리를 '소나무에 이는 바람소리(松風)'나 '계수나무에 떨어지는 빗소리(桂雨)' 등에 빗대어 시적으로 묘사했다.

섬세한 차 세계를 추구한 옛 사람들은 차를 끓이는 다구와 그 역할에 따라서도 차의 향과 맛이 달라진다고 여겼다. 때문에 찻물을 끓임에 '어떤 물을 길어서 사용하는가' 뿐만 아니라, 그 물을 '어디에, 어떤 온도로 끓여서 사용해야 하는가'까지 깊이 고민하고 선별했다. 조선의 초의(草衣) 또한 〈동다송(東茶頌)〉에서 찻물을 끓이는 중정의 도(道)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였다. 물을 끓이는 다구란 결국 이러한 도를 얻는 공간이니 그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⑱

1. 부처님의 10대제자 중, 부처님을 가장 오랫동안 시봉하여 다문제일로 일컬어지며, 경전을 결집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송한 제자는 누구인가?
① 라훌라 존자
② 아난(아난다) 존자
③ 푸르나(부루나) 존자
④ 목련(마하목갈라나) 존자
⑤ 사리불(사리푸트라) 존자

해설 : 아난은 부처님을 25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시봉하면서 가장 많은 설법을 들었기에 다문(많이 들음)제일이라 하였다.

2. 법문을 듣는 자리에서 졸다가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부처님으로부터 호되게 꾸지람을 듣고, 자책하여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한 나머지 시력을 잃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 눈[천안(天眼)]을 얻고, 열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석가족(사꺄족) 왕자 출신인 이 사람은 누구인가?
① 우빨리(Upali) ② 라훌라(Rahula) ③ 아난다(Aannda)
④ 데와닷따(Devadatta) ⑤ 아누룻다(Anuruddha)

해설 : 우빨리는 지계제일, 데와닷따는 부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악인이다. 아누룻다는 아나율이라고도 하며 하늘 눈을 얻은 천안제일이다.

3. 부처님의 10대제자 중 신통제일로 일컬어지는 제자는?
① 라훌라 존자
② 목련(목건련) 존자
③ 아난(아난다) 존자
④ 푸르나(부루나) 존자
⑤ 사리불(사리풋타) 존자

해설 : 라훌라는 밀행제일, 목련은 신통제일, 아난은 다문제일, 부루나는 설법제일, 사리불은 지혜제일이다.

4.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21년이 되던 해에 사왓티 거리는 살인마의 출현에 공포에 휩싸였다. 그 살인마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죽은 사람의 손가락을 엮어 목에 걸고 다녔다. 이 살인마를 부처님은 교화시켰는데, 그 살인마의 이름은?
① 틱낫한 ② 박가와 ③ 달라이라마 ④ 앙굴리말라 ⑤ 암베드카르

해설 : 앙굴리말라는 잘못된 스승의 가르침으로 100명을 죽여 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게 되었고, 99명의 손가락을 모은 뒤 자신의 어머니를 죽여 마지막 손가락을 모으리라는 사실을 알아챈 부처님께서 직접 교화하셨다.

5. 매우 우둔하였지만, 부처님께서 늘 티끌(번뇌)을 없애라는 가르침을 받고 걸레로 늘 쓸고 닦으면서,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는 모습을 관찰하여 깨달은 사람은?
① 수밧다
② 앙굴리말라
③ 니디(니이다이)
④ 마하까사빠(마하가섭)
⑤ 쭐라반특가(주리반특가)

해설 : 주리반특가는 매우 우둔하여 가르침을 암송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여 청소라는 반복되면서 간단한 행위를 통해 부처님께서 교화하셨다.

6. 불교 역사상 최초의 비구니는?
① 위사카 ② 말리까 ③ 암바빨리 ④ 야소다라 ⑤ 마하빠자파티

해설 : 여성의 출가는 아난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부처님의 이모이시자 키운 어머니인 마하빠자파티가 출가하여 최초의 비구니가 되었다.

7. 부처님 당시 최초로 삼보에 귀의한 재가 제자는?
① 유마거사 ② 숫도다나왕 ③ 빔비사라왕 ④ 수닷타장자 ⑤ 야사의 아버지

해설 : 부처님께서는 초전법륜 이후 숲 속에서 노닐던 야사 및 50명을 출가시켰고, 이들을 찾아온 야사의 아버지는 부처님께 귀의하여 재가신도가 되었다. 다만 최초의 공양을 한 제위와 파리의 경우 아직 초전법륜 이전이었기에 삼보 중 승보가 아직 없었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정답 : 1. ② 2. ③ 3. ② 4. ④ 5. ③ 6. ③ 7. ③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새해 기운을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⑧ 우담 스님의 시래기 국수



▶한줄 요약
시래기 국수는 시래기 삶은 채수가 기본이다. 푹 우러난 채수에 된장을 연하게 타서 훌훌 마시기 좋고, 속이 편한 것이 특징. 그 위에 짭조름하게 된장에 조려낸 시래기 볶음을 고명 삼아 얹어 먹는다.

구수한 시래기 '일품'… 할머니 추억도 '한 스푼'

"할머니와의 추억이 있는 국수가 있어요. 그런 추억도, 음식도 많아요."

전화기 너머 우담 스님(천안 제화사 주지)의 한마디에 일순 마음이 일어나 춤을 춘다.

'할머니, 추억, 음식' 이 세 마디 단어가 가진 힘이란 얼마나 큰가. 이 마법의 단어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혼을 일으키게 하는 힘이 있다.

할머니와 손녀, 그 진한 연대와 사랑의 역사가 담긴 한 그릇. 우담 스님의 시래기 국수를 찾았다.





우담 스님은 시래기 국수를 소개하며 "따뜻한 도량에서 모두와 나누며 회향될 한 그릇"이라고 말했다.

우담 스님의 시래기 국수

재료 시래기

양념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들기름, 채수

만드는 법
1. 시래기는 부드럽게 삶아서 찬물에 헹군 뒤 물에 담가 30분간 우려낸다.
2. 시래기 껍질을 벗기고 물기를 꼭 짜서 총총 썬다.
3. 시래기에 간장, 들기름을 넣고 무쳐서 밑간을 한다.
4. 밑간을 한 시래기에 볶아주는데, 이때 미리 준비한 양념을 넣고 푹 익힌다.
5. 채수에 된장을 조금 풀어 끓여둔다.
6. 국수를 알맞게 삶아 그릇에 담은 뒤, 채수를 적당히 부어주고 시래기 고명을 얹는다.

따뜻한 그 절집

충남 천안시 문화동에 자리한 제화사. 천안역과 천안터미널 어느 곳에서나 도보로 30분 안팎의 거리에 있는 접근성이 좋은 사찰이다. 도심에 자리해 있지만 고즈넉한 주택지구로 둘러싸여 여느 산사와 다름없는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하지만 무엇보다 이곳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제화사를 채우는 따뜻한 훈기에 있을 것이다.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한 학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처럼 담장을 날아오른다. 언젠가 한 번쯤 보았을 법한 예스러운 골목길. 나지막한 화단을 따라 도량에 가만히 들어서면 마치 오랜만에 옛집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드는 이곳. 곳곳에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손때 묻은 물건들, 또 누군가 직접 심고 내내 정성 들여 돌봄이 분명한 화단의 어여쁨 때문인지도. 아니, 그 무엇보다 제화사를 지키는 스님들의 안온한 성정 덕분일 것이다.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요."

커다란 눈에 미소가 가득 담긴 우담 스님을 만난 날, 스님은 처음 이곳을 찾은 객을 위해 앞장을 선다.

"우리 사찰은 구조가 미로 같아요. 도심의 아주 작은 주택에서 조금씩 터를 넓히고, 고쳐가며 지금의 모습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함께 다니며 안내를 받아야 길을 잃지 않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 절터를 넓혀가며 보수를 거쳐 도량을 정비한 이곳. 쓰임에 따라 고민하여 구획을 나누고, 길을 내고, 정성껏 다듬어 온 흔적들이 마치 나이테처럼 곳곳에 새겨져 있다.

하지만 제화사를 돌아보는 이 여정의 백미는 우담 스님을 따라 들어선 사찰음식 교육장 문이 활짝 열린 순간이다. 이토록 진하고 진한 된장 내음이라니. 삶은 시래기의 구수한 향과 잘 끓여진 된장 냄새가 이 공간에 온통 방점을 찍는다.

"어서 들어와요, 냄새가 구수하죠? 지금 시래기 국수를 끓일 거예요. 할머니가 많이 해주시던 그 국수요."

할머니의 시래기 국수

"저는 시골에서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그래서 생활방식도, 입맛도 할머니 같아요. 덕분에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 다들 어느 시대에서 살다 왔냐고 웃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우담 스님의 손끝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시래기 된장 국수가 만들어진다. 오래전 할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비법 그대로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어요. 어린아이 입에 시래기 된장국이 맛있을 리가 있나요. 할머니께 안 먹는다고 투정도 부리고. 그래도 시골에서 딱히 먹을 게 없으니까 참 많이 먹은 음식이에요."

그 시절 사시사철 떨어지지 않고 먹었던 시래기는 밥, 국, 찌개, 볶음, 여러 반찬까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요긴하게 쓰였던 1등 식재료였다. 또 간간하게 잘 조린 시래기 볶음을 속에 넣은 만두도 할머니의 지혜가 담긴 잊지 못할 별식이다.

시래기 국수는 시래기 삶은 채수가 기본이다. 푹 우러난 채수에 된장을 연하게 타서 훌훌 마시기 좋고, 속이 편한 것이 특징. 그 위에 짭조름하게 된장에 조려낸 시래기 볶음을 고명 삼아 얹어 먹는다.

고명을 만드는 재료는 간단하지만, 조금 더 품이 들어간다. 먼저 잘 불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 시래기를 간장과 들기름으로 밑간을 한 뒤, 살짝 볶아줄 것. 그리고 다시 된장을 넣어 폭폭 끓여 주는데, 이때 취향에 따라 고추장을 조금씩 넣어주면 칼칼함이 입맛을 돋우어준다. 또 달이듯 볶아주어야 시래기의 질깃한 것이 풀어지고 식감이 좋아지므로, 적절히 물을 부어가며 조려주어야 간이 잘 배어든다.

시원한 된장 국물에 잘 익은 국수, 그 위에 얹어진 짭조름한 고명을 슥슥 비벼 먹는 맛이란! 담백하고, 구수한 맛에 속까지 편안하니, 앉은 자리에서 몇 그릇이고 먹을 수 있을 것만 같다.

할머니와 생일이 같은 아이

"저는 할머니와 생일이 같아요. 어릴 적엔 도시에 나가 있던 고모, 삼촌들이 할머니 생신 때 되레 할머니께 이런저런 음식을 해달라는 것이 이상했어요. '엄마, 나 엄마가 해준 인절미 먹고 싶어' 하고 오면, 정작 생일을 맞은 할머니와 제가 절구에 쌀을 찧어 인절미를 만들어 주기도 했거든요."

때로는 한 그릇의 음식이 '사랑' 그 자체가 될 수 있음을 아직 몰랐던 나이.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의 밥이 온 가족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던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1년 365일 중 단 하루의 수를 함께 하며 태어난 두 사람. 할머니와 우담 스님이 함께 한 그 나날 동안 두 사람은 뭇 생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과정을 오롯이 함께 한 동반자였는지도 모른다.

"할머니와의 추억이 참 많아요. 우리 집 뒤로 대규모 간척 논이 있었는데, 헬리콥터로 농사를 지을 만큼 아주 컸지요. 하지만 저희는 논밭이 없어서 그곳의 추수가 끝나면 부대 자루를 몇 개나 가지고 가서 남은 벼 이삭을 가져왔어요. 그걸로 밥도 해서 먹고, 말려서 방앗간에 가져가 떡도 해 먹고요."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난하지도 않았다. 수많은 우주를 품에 안고 키워낸 할머니의 사랑이 그날의 들판보다 크고도 큰 이유다.

위대한 유산

"곧 있으면 아카시아가 피는 때가 와요. 이 계절이 되면 할머니가 아카시아 꽃을 따다가 버무리를 해주셨어요. 아카시아 꽃에 쌀가루를 묻혀서 쪄내는 건데, 어린 마음에도 너무나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돌아가신 할머니의 첫 생신이자 우담 스님의 생일을 맞았던 올해. 이제는 스님에게 새겨진 그 오랜 맛의 지도를 따라 그리운 이를 만나야 할 때다.

잘 말려 질기디 질겨진 시래기를 먹기 좋게 만드는 것은 꽤 오랜 조리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한다. 할머니의 부엌에서 닦이고, 데워지며 다시 새로워지는 것은 비단 먹을거리만은 아니었을 터. 길고 긴 그 정성의 시간으로 한 사람의 수행자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오래전 할머니가 그러하셨듯, 우담 스님이 머무는 이 따뜻한 도량에서 수많은 이들이 몸과 마음의 영혼을 채워갈 터다. 그 모두와 함께 나누며 회향될 할머니의 맛있는 국수, 그 한 그릇의 위대한 유산이 있다.

〈작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스님의 한탄!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앰프시설 명가에서 최고의 시설을 했다는 명산대찰에서 "제" 를 지내 본 염불 스님들이 한결같이 본사제품 시설 사찰들의 소리에 비해 염불이 힘이 든다는 하소연에 시설 총괄스님 (국장스님) 의 입회하에 본사의 초간편 최신형 디지털앰프 견본과 법당의 소리와 소리 비교 순간!

정확하게 그것도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 장난감 수준같은 현격한 소리차이에 귀를 의심하며 양쪽 소리를 계속 비교하시던 스님의 말씀 아!....내가 최신시대의 흐름을 너무 몰랐구나! 의 한탄 이었습니다.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법당서 소리비교시 상기의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누가 손해?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평균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2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방문시 스마트폰으로 일천만원 상당의 마이크 시리즈 소개, 본품도 이와같은 제품입니다. 주문택배시 20% 할인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7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79만원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가격 ₩ 79만원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대행 스님

항상 마음의 인등을 켜면서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 단계의 공부 과정

질문 타 사찰에서 참선을 하다가 우연히 대행 스님의 법문을 접하면서 관하는 도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대행 스님의 세 단계의 공부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명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답변 지금 시쳇말로 공부하는 과정을 시로 한마디 읊겠습니다.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나와 남이 두루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나와 남이 같이 두루 나투는
이름 없는 이름이여

해산봉은 화산 터져 두루불이 진동하여
이름 없는 이름이
그대로 여여하더라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줘서 하는 말도 아니요, 누가 지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두루 살피고 또 살핌 없이, 자기가 스스로 한 티끌만도 못하고 깨알쪽만도 못한데…, 다 실은 뜻입니다.

지금 읊은 그것은 우리가 제일 첫 번에, 들고 나는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놔라. 맡겨 놔라. 이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 결국은 그때에 진짜 관해야 됩니다. 편안해졌을 때 '주인공! 당신이 있다면 대답해 봐!', '당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좌선을 하고, 편안해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 것이 공부라면 이것은 영 발전이 없습니다. 좌선을 해서 편안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이만하면 족한 것을….' 한다면 그걸로써 족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공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내 마음을 발견했을 때, 내 대답을 내가 들었을 때, 그때는 앞서의 그 습을 다 놨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없어요. 그래서 일 단계는 다 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편안해지면 나를 발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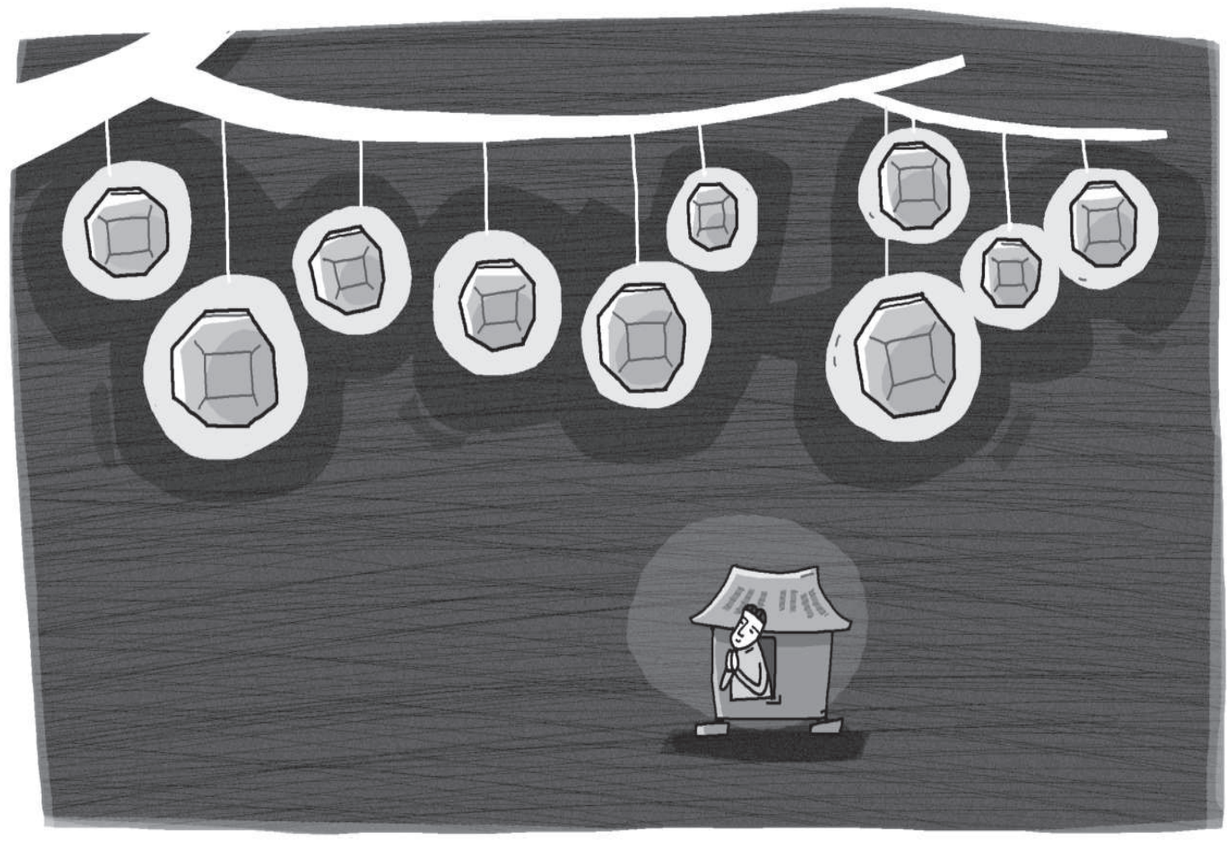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다음에 발견해 가지고 진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다시 체험하고 실험을 통해서 생활에 조금도 걸림 없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시 보임을 하면서 다시 굴리면서, 안으로만이…,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고 남 볼 겨를이 없습니다. 아니, 볼 겨를이 없는 게 아니라 남의 잘못, 잘된 것을 말할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바보가 아니냐?" 이러겠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겁니다. "나와 남이 더불어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했습니다. '두루 같이'입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모든 게 두루, "두루 같이 죽은 이름이여." 했습니다. 더불어 둘이 아님을 알면서 체험하면서, 남한테 잘못했다 잘했다 말할 수 있는 겨를이 없이 안으로 굴려서 안에다 놓고 말을 하면서, 안에다 놓으면서 말을 했어도 말을 한 사이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럼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나를 발견하게 되면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발견했어도 만약에 그 습이 앞을 가린다면 자꾸 내가 잘났다고 하게 됩니다. '내가 제일이다.',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다면 그 '깨달았다'는 거기에서 그만 더 진전을 못 하고, 더 계발을 못 하고, 두루 물리가 터지지 못한 채 그냥 멈춰 버리고 말고 미해집니다.

해산을 해서 어린애를 낳았는데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않고 어떻게 어른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육조 스님이 십육 년 동안을 그렇게, 깨달아서 바리때를 이어받아 가지고도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달마 대사 역시 면벽을 했고요. 깨달았어도 그렇게 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같이 두루 나투는 방법을, 둘이 아니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아주 정열적으로 확고히 알려고 했던 거죠.

생활이 불법이자 진리이자 과학이기도 합니다. 안에서 생각했으면 반드시 바깥으로 나오니깐요.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깨달아 가지고도 내가 '나'라는 게 없는 공부가 바로 진짜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승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배우는 거죠. 자기는 시자로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공부 가르치는 자기로서, 자기는 공부를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합니다. 자기는 놔야 하고 자기는 바로 항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데는 역시 각오가 튼튼해야만 합니다. 앞서 그 "같이 나투고 두루불이, 이름 없는 이름이여."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돈오나 점수나 물 흐르는 데 붙지 않듯이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며

질문 사월 초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초파일 행사에 동참하면서도 부처님께서 49년 설하신 그 뜻을 깊이 새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가르침을 깊이 통찰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뜻깊게 보내고 싶습니다. 올해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몸을 나투시어 저희들에게 그토록 가르치고자 하셨던 참뜻을 새길 수 있도록 가르침 청하고자 합니다.

답변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생각으로 이날까지 살아왔던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의 인등을 켜면서 꺼지지 않도록 하고 왔던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 년을 하루로 축소할 수 없다면 하루를 일 초로 축소할 수 없는…, 영원한 오늘이라는 이 도리를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우리 마음과 말과 뜻을 한 번 더 다져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법회를 하는데, 석사나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부부들과 천주교인, 기독교인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법회 장소를 메웠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중 하나 기억나는 것이, 법회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어서 그랬는지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기를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

☞ 20면으로 계속

'2代' 이은 연등 제작
승강장치 시공 전문기업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010-9446-1862
031)768-7270, 7271

찬덕불교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어받아
공장 직영 생산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보장합니다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고 남 볼 겨를이 없습니다

☞ 19면에서 계속

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이전부터 생명은 있었으니 초 초마다 부활절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생각을 일으키는 대로 부활절이지 달리 부활절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부처님께서 오신 뜻이고, 인등을 켜는 것이고, 또 부활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작년의 초파일이나, 다가올 초파일이나, 내년의 초파일이나, 삼천 년 전 오늘이나 똑같은, 영원한 오늘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그 나신 날을 기리기 위해서, 그 뜻을 배우기 위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그렇게 따르고 배우고 그 배움의 고마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모두 이 마음을 조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정해 놨겠지만 부처님은 나신 날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부처님 자체가 따로 생일도 없고, 따로 이름도 없고, 자기라는 부처도 따로 없고, 우주 세계가, 전체를 비춰볼 때 여러분이 만 명이라면 그 만 명이 부처님이 다 되니깐, 여러분이 여기 있어도 그 마음 안에는 항상 부처님이 결부돼서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한마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한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주간 법계에 우리가 같이 통하면서 같이 움죽거리면서 같이 한자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마음이라는 것은 전체 우주와 더불어 같이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어느 한 종교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진리로서 일체와 더불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교는 좋은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것이 없죠.

그렇듯이 우리들의 일상이 그대로 불법인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며 움직이는 것이 참선이며, 그 경계가 모두 공부할 수 있는 재료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며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오는 사월 초파일만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영원한 오늘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내가 있으니 항상 부처님 오신 날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열반에 드신 적이 없습니다. 열반이라 함은 돌아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 항상 여여함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몸을 가지고 살아 있으면서 열반에 드는 도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들 혼사 문제로 갈등이…

질문 요즘 제 아들 녀석의 혼사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들을 믿고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영 캥기지 않아 괴롭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챙기면 좋을까요.

답변 부처님께서는 "남을 위해서 일을 하면 내가 위해진다. 공을 치면 반드시 튀어온다." 이런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나오는 거,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시각적으로 들어오고 감각적으로 들어오고 이러는 거, 들리고 보이는 거를 그냥 내쏘지 말고,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행동하지 말고, 그냥 판단하지 말고, 안으로 놓고 굴려서 내놓고 활용하고 작용해라. 너무 성급하게 가면 안의 도리는 모르고 바깥의 물질에 끄달려서만 해 나가는 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다. 그러니까 안으로 모든 것을 놓고 맡기면서 작용은 그대로 해라. 이것이 바로 중심 중용입니다.

그런데 중심 중용을 하지 않고 여러분은 항상 그저 들리는 대로, 예를 들어 누가 아주 몹쓸 욕을 했다면 그냥 쏜살같이 나갑니다. "그놈이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그래? 왜 그런대?" 그러고는 악의적으로 말이 나가면서 그냥 뱉어 버리죠. 그러나 알고 본다면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었지 내가 없다면 상대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 탓이죠.

또 넓게 생각을 한다면 수억겁 전년으로부터 진화될 때 곤충으로 인해서 오기도 하고, 시대 시대를 쫓아서 참 많은 시대를 극복하면서 쫓고 쫓기면서, 먹고 먹히면서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인간까지 진화돼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고 또 모였다 또 흩어지고 하듯이, 사람도 부모가 됐다가 자식이 되는 것도 엇갈려 가면서 그렇게 돌아왔단 얘기입니다. 수없이 그렇게 돌아왔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럴 때 내 부모라고 하겠습니까 저럴 때 내 부모라고 하겠습니까?

넓고 크게 전체를 본다면 하나도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하나도 내 자식 아닌 게 없습니다. 좁게 본다면 내 가정 내 식구 내 남편 내 자식 요렇지마는, 그것은 한 철 나와서 우리가 같이 인연을 맺어서 놀다 갈 뿐입니다. 놀다 헤어지고, 헤어졌다 또 만나서 노는 구름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고무줄 인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둥바둥 천년만년 살 줄 알고, 한 철 났다가 가는 것을 그렇게 아귀다툼을 하고 원수처럼 싸우고 이쁜 것 미운 것 찾으면서 온통 야단법석들을 하죠, 배신들을 하면서. 그리고 고운 말도 나가지 않으면서 악성적인 말들을 뱉어 버리곤 하죠. 그게 인과응보가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인과응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다,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이렇게 하고서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 자기가 해 나갈 수 있는 자기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다가 맡겨 놓고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내 탓으로 돌리고 어떤 걸 잘못해도 내가 못났을 때 잘못했을 때의 내 모습으로 보고, 또한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에 미약한 점을 발견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어려서 그 나이 때의 생각을 한번 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즉 말하자면 철난 마음으로써 그것을 대하니까 맞나요? 핀트가 안 맞죠. 그러니깐 자기 모자랐을 때 자기로 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도 분노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자기 소유를 자기가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자식이다 해서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싫다는 거를 강요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식이 부모 뜻과 반대로 나가는 거, 부모가 보기에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판단이 서면 이런 것도 잘 돌려서 잘되게끔 해 줘야죠. 이 부처님 법이라는 게 잘 돌려서 잘 살게끔 해 주는 것이 부처님 원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건 옳고 저렇게 나가는 거는 틀리다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건 모가 나죠. 그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 나간다 하더라도 '잘못 나간다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지 그게 아니다.' 하고 주인공에다 맡겨서 잘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이것이 옳다 그르다 밉다 곱다 해서 판단을 자꾸 한다면, 남편도 아내 일에 잘한다 못한다 판단을 하고 아내도 남편 일에 잘한다 못한다 해서 판단을 한다면 이거는 진짜 잘못 나가는 겁니다. 모두가 잘못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갈 길이 지금 바쁘고, 나한테 내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지금 놓고 맡기고 가는 것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걱정을 해요? 남의 참견까지 해요. 남이 한 거, 남이 말하는 거 듣고 온통 참견을 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어! 그거야 네가 죽인다고 하는 거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고 놔 버려야 할 텐데, 모두 이거를 끄집어내 가지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면서 미워하고 자식들도 다 팽개치고 이혼하려고 그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르니까 어쩌고…, 이런 예가 많습디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시집을 보낸다거나 장가를 보내는데, 자기네들끼린 맞는데 부모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강요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여직껏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보니깐 이게 기울어지고 맞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 이렇게 한다면 내 자식이 아니다." 요럽니다, 허허.

자식이라고 이름은 지어 놨지만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 몸을 빌려서 태어나고 그랬지만 그게 몸 빌려 주고 빌려 받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끝 간 데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 가는 거지, 그것은 각자의 소유물이 아니죠. 모두가 그렇게 해서 머리가 커지면 그저 태양의 아버지가 되고 산하대지의 어머니가 되고 그래서 양면을 다 키워 줄 뿐이지, 키워서 또 그 대에 가면 또 그렇게 키워 줄 뿐이고 또 그 대에 가서 또 그렇게 키워 줄 뿐이지 아니, 종시 내 자식이 어딨고 종시 내 부모가 어딨고 종시 내 형제가 어딨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얕은 물에서 노는 고기들은 좀 더 바깥으로 넓게 나가서 바다를 생각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법은 생동력 있고, 바로 반작용을 한데 모아서 작용을 하는 그런 마음의 도리를 배워서 그 에너지를 광대하게 쓰라는 그러한 이치였지, "죽어서 천당에 가거라. 죽어서 승천하거라." 이러고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살아서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 죽는다고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사시면서 어떤 것도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그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속에 맡겨 놓으세요. '한마음!' 이러면 모든 고(苦)의 의식들이 전부 한데 합쳐지는 그런 뭉침입니다. 여러 사람한테 자꾸 부탁을 해야 할 텐데, 그 부탁이 한두 건이라야 부탁을 하죠. 그러니깐 아예 동시에 묶어 버리는 겁니다, 한마음! 동시에 묶어 버린 동시에 그 한마음으로서 중심을 세우는 것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주인공'만이 해결을 할 수 있고, 잘되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왔으니까 되는 것도 거기서 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왜 안되는 것도 금방 거기서는 한순간에 될 수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속도가 빠르거든요. 시공이 없는 그 속도는 아주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놓고 거기 맡기면 안 되었던 것도 순간에 되돌아오는 것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빛보다 더 빠르니까요.

> 우리가 항상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부처님께서 오신 뜻이고
> 인등을 켜는 것이고 부활이 아니겠는가.
> 작년의 초파일이나 다가올 초파일이나 내년의 초파일이나
> 삼천 년 전 오늘이나 똑같은 영원한 오늘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하성미 기자의
心心 talk talk
⑮ 마음에서 자유로운 붓다

‘내적 대상’서 벗어나라

미연(가명)이는 8살 여자아이였다. 하얀색 얇은 반팔 티 아래로 보이는 팔은 깡말라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처음 만났을 때 의자에도 앉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서 있는 모습에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졌다.

미연이를 처음 만난 곳은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이었다. 아동그룹홈은 해체된 가정 혹은 학대, 유기, 방임 등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설이다. 소규모로 운영되기에 가정집 같은 분위기이고 겉으로 봐서는 그룹홈인지 알기 어려웠다. 미연이는 시설장인 보호자를 엄마라고 불렀고 많이 따르는 모습이었지만 며칠 전부터 자해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함께 지내는 동생들을 때리거나 반복해서 다퉜다. 입소했던 아이 중에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학교와 그룹홈에서 문제를 일으키다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서부터였다.

언젠가 자신도 버려질 거란 두려움.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생각은 공포가 되었고, 자신을 버린 엄마는 재혼해 남자아이를 낳고 산다는 소식을 접한 뒤라 불안은 더욱 심하게 보였다.

심리검사인 HTP(집-나무-사람검사, House-Tree-Person Test)를 실시하면서 미연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가족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표현하는 동적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를 그릴 때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종이에 아빠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 속 아빠는 미연이를 안고 놀아주며 밝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자신과 놀아줬다는 아빠는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미연이 엄마를 만났고, 딸을 임신하자 버리듯 도망을 간 비정한 사람이었다. 미연이는 태어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버려져 그룹홈에서 계속 성장해야 했다. 버림받고 유기된 삶인 미연이, 이를 보상하듯 내면의 아빠는 자상했고 따뜻했다.

심리치료에서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연이가 믿는 따뜻하고 자상한 아빠를 함께 그대로 믿어주는 것이었다. 진실을 직면시키기보다는 아이의 소망과 내적 환상을 깨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미연이의 마음에 ‘내적 대상(internal object)’인 아빠가 그나마 따뜻하기만을 간절하게 기도했다. 궁극적인 치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연이의 나이에 어울리는 대처라 생각했다.

심리학에서 내적 ‘대상(internal object)’은 중요한 개념이다. 특히 정신 분석은 외부의 사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만든 심리적 표상에 관심을 가진다. 내담자가 사건과 사람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사물, 장소 등 직접 관찰 가능한 사회 환경에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한다. 그 경험은 이미지, 생각, 환상, 감정, 기억이 되고 내면화된다. 내재화가 된 이 요소들이 심리학의 주제가 된다. 여기서 더 발전해 설명하면 심리학에서 유명한 ‘대상관계이론’의 근간이 된다.

불교, 인간 내면에 자유와 해방을
내면 대상 벗어나는 알아차림 수행

대상관계이론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아이들의 마음에 자리 잡는 과정을 내재화라고 하고, 이렇게 내재화된 마음은 아이들의 정신에 영향을 끼친다. 내적 대상은 유아에게도 영향을 끼쳐 좋은 자기(good self)와 나쁜 자기(bad self)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

대상관계이론은 심리학 이론 가운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마음이론이다. 이 이론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맺는 대인관계 패턴을 설명하고 성격 형성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다. 대상관계이론은 사람의 모든 행동 패턴과 성격 등을 해석하도록 돕는 위대한 이론이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불교의 관점을 보태고 싶다. 불교의 관점이 너무나 획기적이기 때문이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상’이란 단어를 불교에서도 비슷하게 사용했다. 불교가 진리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적 대상을 만드는 인간의 내면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감각기관(오온), 외부로부터 체험하고 경험한 내용으로 내적 대상을 만든다. 이 설명은 불교와 대상관계이론이 비슷한 지점이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적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윤회 없는 성스러운 삶을 만들었다. 책 〈고타마 붓다의 생애〉에 따르면 붓다는 말했다.

“나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깨달았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내 마음은 감각적 인생이 갈망하던 환상으로부터, 존재들이 갈망하던 환상으로부터, 그리고 무지에서 오는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러한 자유에서 자각이 일어났다. 이제 나에게 윤회는 없다. 성스러운 삶은 완성되었다.”

내면이 만들어낸 모든 환상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붓다는 내적 대상이라는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도 붓다는 〈대념처경〉을 통해 밝혀두었다.

“대상을 알아 대상을 알아차림”, 바로 외부 자극 및 모든 감각으로 들어오는 대상을 알고 마음의 대상(신수심법)을 아는 것! 우리를 속이는 내적 대상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이다.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홍재화의
걷기삼매경
⑨ 걷기와 경제 환경의 변화

지칠 땐 ‘슬로우 라이프’로 살자

비즈니스를 위한 걷기

‘더 높게, 더 빠르게, 더 힘차게’는 올림픽 구호이다. 수렵채집시대 원시인들의 생존 조건이기도 하다. 빨리 달리고 더 높이 나무 위로 올라가고 힘이 센 사람이 생존에 유리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는 바로 육체노동이었고, 이 결과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 옮기는 수단 역시 인간의 두 다리였다.

수렵채집의 다음 시대는 농경시대였다. 수렵시대에는 사냥을 위해 1인당 평균 10㎢의 토지가 필요했지만, 건조지 농경에는 1인당 500㎡만 있으면 됐다. 멀리 돌아다닐 필요는 없었지만, 모든 생산 활동은 자신의 부락 근처를 떠나지 않으며 농기구와 추수한 곡물을 온전히 사람의 힘으로 옮겨야 했다.

그렇게 힘들게 300만여 년을 지내고서야 인간은 비로소 바퀴를 발명하고 물고기의 유선형을 본뜬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퀴가 운송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한참 뒤로, 기원전 2000년에야 인간이 끄는 수레가 나온다. 그러니까 최초의 운송수단은 육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상에서 나온 배이다. 말을 길들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3100년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육상 수송 수단은 고구려 무용총의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용총의 벽화에는 다양한 용도의 수레와 수레 보관용 차고가 그려져 있어, 고구려 시대에 이미 마차 및 말 수레를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세기 말에 자동차가 운송수단의 주역이 되기까지 인간의 주된 운송수단은 사람의 보행과 더불어 말과 낙타였다.

그러니까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마차와 배가 있기는 했지만 운송 가능한 무게는 말, 낙타가 움직일 수 있는 게 한계였고 속도는 인간의 걸음 속도인 시속 5~6㎞, 하루 약 20㎞ 정도였다.

목화솜 두 개가 꽂힌 패랭이, 긴 지팡이를 짚고 봇짐을 멘 조선의 보부상들의 이동 속도가 이 정도였을 것이다. 이들은 부피가 큰 짐은 등짐, 작은 짐은 봇짐으로 갖고 다녔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자료에 의하면 ‘모시 생산으로 유명했던 충남 부여·한산 지역 보부상이 각 마을의 5일장을 돌아다닌 거리를 계산해 보면 한 달에 396.6㎞, 1년이면 4759.9㎞를 걸었다. 30년간 보부상 생활을 한다면 지구를 3.6바퀴 도는 셈’이라고 한다. 이러한 추세를 보면 길어야 최근 200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의 속도는 인간의 걷는 속도와 같았다.


사진출처=unsplash

그러나 운송수단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걷는 것은 전혀 경제적이지 않게 됐다. 시속 100㎞로 나르는 시대에 시속 5㎞의 보행은 비능률의 상징이 됐다. 시속 50㎞의 속도로 20만여 톤의 화물을 운송하는 배와, 시속 1000㎞의 속도로 100톤의 화물을 날려 보내는 비행기가 등장하면서, 사람이 직접 만나고 만지고 걸어가면서 하던 인간적 비즈니스는 사라졌다. 부산에서 낙타 30마리에 실릴 분량인 9톤의 상품을 보내기 위해 배를 이용하면 한 달 정도, 비행기를 이용하면 하루 밤이면 충분하다.

걷기 위한 비즈니스

인간을 먹여 살렸던 두 다리는 두 손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것이 사업성이 높은 사업이다. 돈과 화물을 움직이는 것은 새로운 운송 수단에 넘겨주는 대신, 발보다는 손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자동차 운전은 손으로 하고, 전 세계와 연결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도 손으로 하고, 비즈니스 상대와 대화도 얼굴 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쓴 글로 하기 때문이다.

시속 5㎞로 움직이던 인간은 이제 빛의 속도로 동서양을 오가며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 발로 하던 아날로그식 속도는 구태의연하다 못해 벗어 던져야 하는, 낡은 외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정보의 흐름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남들보다 빨라야 하는 파괴적 경쟁의 시작이었다. 세계화와 정보통신화가 진전되면서 다리를 많이 쓰는 직업일수록 천대받았다.

그렇게 보행의 종말이 도래하던 와중에 걷기를 위한 비즈니스가 출현했다. 걷기가 다시 경제적 행위가 됐다. 지나치게 빨라진 속도에 대한 인간의 피로감이 다시 느림의 미학을 불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근본은 바뀌었다. 걷기를 통한 비즈니스에서 걷기를 위한 비즈니스가 출현한 것이다.

과학과 교통수단의 발전은 인간에게 늘 이롭지만은 않았음을 인간은 깨달았다. 대량생산·대량소비 시대에는 시속 5㎞로 사는 것은 뒤처진 것이고 게으른 것으로 치부됐다. 정보통신의 시대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적응해야 하는 시간은 더욱 더 빨라져 가기만 했다. 이러한 인간이 적응하기에 지나치게 빠른 변화와 속도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빠르고 능률적인 삶 대신에 느린 삶인 슬로우 라이프(Slow life)를 추구한다.

이들은 여행을 갈 때도 시속 300㎞의 KTX를 타기보다는 시속 60㎞의 무궁화호를 타면서 주변 풍광의 변화를 즐긴다.

이제 걸어서 돈 번다는 개념은 사라지고, 걸으면서 우아하게 돈을 쓴다는 개념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비즈니스가 생겼다. 걷기를 위한 여행클럽, 걷기를 위한 인터넷 카페, 걷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행 책의 발간 등등.

걷기는 남이 시켜서 하는 노동이 아니라 즐기고 사색하는 자발적 행위가 되었다. 걷기에 대한 관념과 의식의 변화가 걷기를 위한 비즈니스를 탄생시킨 것이다.

〈비바미(Viva!me) 대표〉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전법 일기

한 불자 여고생의 꿈 기간제교법사로 펼쳐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한 평범한 여고생이 종립학교 법당에서 처음 목탁을 잡았다. 소심한 목탁 소리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오분향례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목소리의 떨림은 계속되었다. 그렇게 예불을 하고 그날 저녁 그 여고생은 집에 가서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이불을 뒤집어쓰고 목탁을 두드렸다. 그건 바로 나였다.

다음날 예불에서 목탁을 잡게 된 나는 어제의 연습과 다짐처럼 자신 있는 목탁 소리와 커다란 목소리로 예불을 이끌었고, 아침마다 예불 시간을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후 3년간 매일 아침 목탁 집전을 하며 예불을 올리고, 자연스레 법사님과 친해져 많은 시간을 법당에서 보내게 되었다. 학교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도 법사님의 전법 프로그램은 진행되었고, 방학이면 전국의 사찰로 순례를 다니며 학창시절 나의 불연(佛緣)은 점점 깊어졌다.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법회에 참여했던 꼬맹이가 느꼈던 불교와, 청소년이 되어 종립학교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며 느낀 불교는 나의 삶에 큰 부분으로 자리했고 이는 나의 인생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살아있는 불교를 접하게 된 나는 '청소년에게 꿈을 전하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교법사가 되겠어!'라는 서원을 매일 가슴에 품고 살아갔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지방 종립학교에서 근무하시던 교법사님이 병가로 휴직하시고 기간제교법사를 구하는 공고를 보게 된 것이다. 연고지도 없는 지방에다가 기간제교법사 자리였지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돼있던 터라 공고가 나자마자 기차를 타고 면접을 보러 갔다. 처음 교장선생님을 뵈었을 때는 나이 어린 여자 법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가득 차 보였다. 하지만 그에 겁먹을 내가 아니었다. 학기가 시작하면서부터 학생들과 친해지기 작전에 들어갔다. 제일 먼저 학생들에게 불교는 신나고 재밌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또한 혈기왕성한 남자 중학생들과 어떻게 신나게 놀아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쇼 미 더 붓다(Show me the Buddha)'라는 불교 랩 경연 대회를 개최했다. 생각보다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상품도 없었던 대회에 전교생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작사 작곡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회당일 법당에서 예선전을 거쳐 Top3에 들었던 학생들의 공연은 학교 방송실이 전교에 생중계했다. 그때 학생들의 설렘 가득한 표정은 아직도 잊히질 않는다. 오랜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저마다의 깊은 인생 이야기와 고민을 부처님과 불교 교리에 접목하며 써내려간 가사가 내 마음을 한껏 몽글몽글하게 만들었다. 학생들과 신나게 놀았던 이 기억은 첫 교직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다. 16년 전 고등학생이 부처님 앞에서 서원했던 전법의 꿈의 첫 발을 내딛는 시작이었다.



김가연 광동고 교법사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⑤ 무산 대종사의 오도송 '파도'

"천경 만론 모두가 바람에 이는 파도"

파도

밤늦도록 책을 보다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먼 바다 울음소리를 홀로 듣노라면
천경(千經) 그 만론(萬論)이 모두 바람에 이는 파도란다

설악 무산 대종사(1932~2018)는 설악산 백담사에서 "부처의 님은 중생"이라는 한용운의 불교정신을 가장 잘 계승 발전시킨 만해의 후예이다. 인제군 용대리 마을 노인들을 부처님 모시듯이 하여 부처를 중생 속에서 찾았다.

'파도'는 무산 스님이 동해 낙산사에서 참선 수행 중에 깨달음을 얻고 읊은 오도송이다. 원래 선시나 오도송은 전통적으로 한시(게송)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쓰는 작자나 읽는 독자가 전문적인 시와 선적인 식견을 갖추지 않으면 접근하기 쉽지 않다. 무산 스님은 선가의 시를 현대시조 형식을 빌어서 표현하는 선시조를 창작한 한국문학사에서 최초로 한글로 선의 세계를 현대시조로 읊은 선시조의 창작자이다. 선시조집인 〈심우도〉 〈만악가타집〉이 있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말로 읊은 한글 선시인 '아득한 성자' '아지랑이' '숲' 등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파도'는 초장, 중장, 종장의 시조 형식(3장)과 규칙을 두루 갖추어 문학성도 뛰어난 현대시조이며, 선(禪)시조이다. 종장의 첫 음보를 보통사람이라면 "천경과"라고 할 텐데, "천경(千經) 그"라 하여 반드시 3음보여야 하는 규칙을 멋지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한시의 운율을 원용하여 "가" "가" "다"로 압운하여 시조의 음악적인 리듬까지 살리는 묘용을 부리고 있다.

선과 시는 공통점이 자연을 보고 느끼는 세계와 마음으로 깨닫는 경계를 고도의 압축된 문자와 직관으로 접근하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므로 시선일여(詩禪一如)라고 한다.

생업 현장인 바다 파도소리 듣고 깨달아
바람 인연 만나야 하는 파도는 '색즉시공'
동해바다 파도소리가 곧 깨달음임을 전해

특히 시조가 선비의 충절과 풍류 등 관념적인 주제를 노래한 정형시인 것이 선사가 선 수행과 깨달음 등 관념적인 내용을 읊는 선적인 시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무산 스님은 선시를 현대시조 형식으로 창작하는 전범을 보인 시승(詩僧)이다.

초장과 중장에서 "밤늦도록 책을 보다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먼 바다 울음소리를 홀로 듣노라면"은 투철한 구도와 수행의 과정을 읊고 있다. 나름대로 경전도 읽고 관법 수행도 해보다가 바다의 울음소리 즉, 파도소리를 듣고 종장에서 깨달음을 예약한다.

'파도'의 주제는 종장의 "천경 그 만론이 모두 바람에 이는 파도란다"이다. 부처가 설한 팔만대장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 낸 모든 관념이 바람이 만들어 낸 파도처럼 실체가 없는 주장과 주의(主義)란 뜻이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매달려서 집착할 것이 못 된다(應無所住)는 〈금강경〉의 공사상을 나타낸 선사의 깨달음의 노래이다.

무산 스님은 하늘의 별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어부가 생업으로 삶의 현장인 바다의 파도소리, 해조음(海潮音)을 듣고 깨달았다. 파도는 바닷물이 바람이란 인연을 만나야 나타나는 실체가 없는 자연계의 현상이다. 색즉시공(色卽是空)이다. 해조음은 부처님의 설법을 상징하는 말이다. 스님은 법상에서 자신의 설법보다 동해바다의 파도소리를 듣는 것이 더 낫다고 설하였다.

며칠 전 아내와 낙산사를 다녀왔다. 해수관음상 곁에서 동해바다를 바라보시는 무산 스님 동상에 합장하고 스님의 무언설법을 들었다. 끝없이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파도소리 "철얼석 철얼석 쏴아…."

〈문학평론가〉

기자칼럼

지구가 살아야 나도 산다

2년 전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만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던 적이 있다. 기후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이었다. 사실 일상에서 가장 실천하기 쉽고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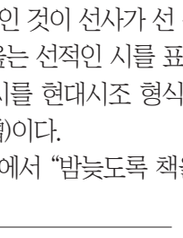
처음엔 잘 지켰다. 출근 후 텀블러를 씻는 게 일과가 됐고, 음료를 사러 갈 땐 꼭 텀블러를 가지고 다녔다. 그에 따른 할인 혜택은 덤이었다. 마치 지구를 구하는 '히어로'라도 된 듯 뿌듯했다.

그리 오래가진 못했다. 귀찮음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 같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만들어냈다. 썩지 않는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양심에 걸리다 못해 죄책감이 들곤 했지만, 그마저도 이내 무뎌져 버렸다.

그러는 사이 기후위기는 우리 실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아침저녁은 추운 반면 한낮은 여름인 탓에 옷차림이 어정쩡해졌고,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줄어 밥상 물가는 요동을 치고 있다. 해수 온도 변화로 김 생산량이 줄어 관련 제품 가격은 10~20% 올랐고, 양배추는 한 통 8000원을 웃돈다. 대파, 사과, 참외, 배추, 당근, 양파 등 밥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품목 가격도 크게 상승했다. 그야말로 '금값'이다.

기후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온 지금,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게 해준 건 불교기후행동의 녹색불자 실천 캠페인이다. 불교기후행동은 제54회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등을 만들며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렸고, 자연과의 공존하는 삶의 필요성을 재차 일깨웠다. 포기하지 않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다행스러운 순간이었다.

기후위기, 더 이상 남의 나라, 남의 얘기가 아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됐다. 지금이라도 나서지 않으면 기후변화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오늘 다시 한 번 텀블러 생활화를 다짐해 본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뉴길 교통사고에 산산조각난 가장의 꿈

네팔 이주민노동자 카미씨, 가족 위해 공장일에 농장까지
눈길 교통사고로 고관절탈구 · 다리골절…병원비 · 빚 25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佛誕 문화의 축제·국제화를

〈불탄〉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교 최고의 명절 '부처님오신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에서 부처님오신날은 국가공휴일이라 불자들은 잠시 일상을 벗어나 원찰을 찾아 공양 올리며, 아기 붓다에 대한 관욕과 등을 밝히며 붓다의 탄생을 축하한다.

불탄(佛誕) 문화의 핵심은 '관욕(灌浴)'과 '연등(燃燈)'이라고 할 수 있다. 연등은 부처님오신날 한 달 전, 길거리에 등을 걸면서 시작된다. 길거리에 등을 다는 것은 여러 요인으로 불자들이 직접 참여하기 어려워 수주한 업자들에 의해 무대 설치처럼 진행된다. 불자들은 정성 다해 등값을 내는 데 그친다. 연등을 보시하거나, 봉축 연등행렬에 동참하는 정도로 연등 문화를 체험한다. 길거리 등 달기, 사찰 안팎에서 등불 밝히기 등에 참여하지 못해 연등 문화의 체험은 제한적이다.

전통적으로 불가에서는 가난한 노파의 등불 밝히기라는 '빈녀일등'을 언급한다. 가난하나 붓다의 탄생을 축하하며 정성을 다해 등을 직접 밝히는 것을 중히 여겼다. 길거리 등을 직접 달고 등을 밝히지는 못해도 정월 보름만 지나면 등을 만들던 예전처럼 사전에 미리미리 '자기 등 자신이 만들기' 같은 방식의 연등 체험 문화를 살리는 것은 어떨까.

아기 붓다를 목욕시키는 관욕의 유래는 〈과거현재인과경〉에도 보인다. 마야부인의 출산일이 가까워졌을 때, 룸비니동산을 거닐다가 무우수

'빈녀일등' 고사 상기시키는 연등
'자기 燈 직접 만들기' 복원 필요

아래에서 태자가 탄생했다. 그때 난타와 복파난타 용왕이 청정수를 토하여 태자의 몸에 쏟아 부었다. 그로 인해 후세 불자들은 붓다 탄생을 기념하며, 불당 혹은 노천에 청정한 곳에 관욕대를 설치하고 정수를 준비해 연화대 위에,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키는 태자의 금상을 모셔놓고, 향수를 아기 붓다의 머리에 부어 목욕시켜 드리며, 탄생을 경축하였다. 관욕에는 온 세계 진리의 주인이라는 의미도 곁들여져 있다. 관불의식은 사월 초파일에, 대개 의례로 진행된다.

조계종 〈통일법요집〉(572쪽)에는 천수대비주·거불·보소청진언·유치·청사〈중략〉팔상예참·사대진언·축원·'욕불'·반야심경 등의 차례가 보이는데, 관욕은 축원 이후 마치 2부 행사처럼 행해진다. 초파일 관욕은 봉축 법회 순서처럼 진행하더라도, 앞으로는 관욕도 초파일 한 달 전에 길거리 연등 달 듯이 한 달 전에 불당 혹은 불당 앞에 관욕대를 설치해서 연등을 달려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관욕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이때 청정수를 몇 번을 붓느냐, 관욕하는 내가 두 용왕이나 아홉 용왕이 되어 관욕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떨까.

연등과 관욕의 체험화는 무엇보다 의미 있는 현대 불교문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불탄일의 세계화이다. 이미 유엔에서 기념일로 정한 '웨삭데이(음력 4월 15일)'를 따르는 것이다. 이를 수용해 음력 3월 15일을 '불탄월'의 시작일로 삼아 거리에 연등 밝히고, 절마다 관욕대를 설치해 관욕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음력 4월 8일은 불탄일이 아닌 욕불일(浴佛日)이라 붓다(불상)를 목욕시키고 1주일간 정진하며 불탄일을 맞이했다는 고사와도 어긋나지 않는다. 부처님오신날 이후 하안거 결제하는 문화로 이어지면 불교의 세계화도 이뤄질 것이다.

디지털 단식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소셜미디어 활동과 동영상 범람에 피로감을 느껴 디지털 단식을 시도하는 20~30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소위 '디지털 디톡스' 카페가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입장 시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설정한 뒤 금고에 보관된다. 당연히 노트북, 태블릿PC 등의 다른 전자기기도 사용 금지다. 오로지 독서만이 허용된다.

디지털 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주는 편의성 못지않게,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행태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역시 적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세대간의 서로 다른 미디어 선택과 이용 패턴은 세대별 세상 인식의 간극을 넓히고,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문이나 TV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의 이용이 전 연령대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이를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미디어가 대체하고 있다. 인터넷은 비연속적이고 비선형적인 하이퍼텍스트로 구성된다. 이용자는 링크라고 부르는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정보공간을 주어진 순서에 상관없이 껑충껑충 뛰어다닐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성으로 인하여 인터넷 속 디지털 정보는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띠고 재구성 된다.

먼저, 맥락의 상실을 초래한다. 서론, 본론, 결

파리에 디지털 기기 금지 카페 생겨
독서만 허용… 디지털 디톡스 일상화

론의 연결된 흐름이 없이 정보가 분절되어, 정보들이 맥락을 상실한 채 끊임없이 재구성 된다. 본래의 맥락은 무시되고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정보가 재편될 뿐이다. 정보 생산자의 의도는 사라지고 오로지 사용자의 목적과 자기식 해석만이 남는다.

다음으로, 저자의 죽음이다. 순간적인 이동과 연결되는 방식에서 저자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정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정보의 흐름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 소비자에 의해 주도된다. 사실보다 허위 정보가 판을 칠 수 있는 위험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거대담론의 해체효과를 초래한다. 전문가나 초등학생 할 것 없이 모든 생산자의 정보가 병렬적으로 제공되어, 모든 담론이 동등하게 경쟁할 뿐이다. 기성 미디어가 던지는 아젠다의 지배력도 약화한다.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미디어가 제공하는 하나의 텍스트 내에서 이용자의 사고를 묶어 놓는다거나 이용자의 기호와 의미를 한정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이용은 하이브리드적 사고를 요구한다. 종합적인 흐름과 연속적인 상황 하에서 새로운 흐름을 읽어내고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사고력을 말한다.

프랑스 파리에도 폰과 디지털 기기의 휴대가 금지된 카페가 등장하였다고 한다. 책과 잡지를 앞에 둔 손님들이 가득한 풍경의 카페가 마치 100년 전의 사진인 듯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바야흐로 전 세계에서 디지털 단식이 일상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社 說

불교, 호스피스 인재 양성 나서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앞선 웰빙이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라면, 웰다잉은 삶의 마무리를 능동적이고 평안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의료정책으로 다루고 있다.

최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 내용 중 불교계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적 돌봄'이다.

미국에서는 영적 돌봄에 대한 임상진단 연구가 이뤄지고, 대만에서는 불교 관련 전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종교성이 강하는 이유로 '영적 돌봄'에 거리를 뒀다.

하지만, 이번 계획의 의결로 '영적 돌봄'이라는 종교적 완화치료가 제도권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임종기 환자와 가족을 위한 영적 돌봄 및 사별가족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과 표준화 매뉴얼 개발에 나선다고 한다. 이는 종교인 중심의 영적 돌봄 프로그램이 보편적 서비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계획에서 밝힌 대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확대하고 영적 돌봄으로 영역을 확장하게 되면 더 많은 불교 호스피스 전문가가 양성돼야 함은 당면 과제가 됐다. 더욱이 호스피스 분야에서 이웃종교보다 후발주자였던 불교는 더 기민하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불교 호스피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범불교적 노력이 이뤄지길 바란다.

'힙한 불교' 호응, 지속 위한 관심을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2030세대에 많은 호응을 받으며, 이슈의 중심에 섰다. 소위 불교가 '힙(Hip)'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계기가 됐다. 이와 더불어 조계종 포교원이 선보인 불교 에니어그램 '부처님 마음, 내 마음' 성격 유형 검사도 2030세대의 또 다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는 소식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급 이후 4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7476명이 에니어그램 검사에 참여했다. 연령으로 보면 30대가 1위를, 40대를 이어 20대가 3위를 차지했고, 전체 비율의 절반 이상(57%)이 2030세대에 집중돼 있다고 한다. 성별로 살펴보면 불교 에니어그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큰 관심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76%(5676명)인 반면 남성은 24%(1800명)에 그쳤다.

MZ세대, 알파세대가 불교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들의 호응과 관심을 어떻게 지속하고, 불교 신행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다. 이번에 개발된 '부처님 마음, 내 마음' 성격 유형 검사를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청년 템플스테이에서 검사를 하고 자신의 맞춤 수행을 1박 2일 동안 해보거나, 같은 유형의 법우들과 같이 맞춤 수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30세대의 불교에 대한 호응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롯이 불교의 노력에 달려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4월 17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4월 17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4월 17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대행스님과의신행문답

생활속의 불법수행

주인공主人空이란 말은 그냥 이름이니 달리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길을 묻는 이들에게 건네는 차 한 잔의 법문

Q 스님께서는 거듭거듭 마음공부를 강조하시는데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A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한 철 살다 가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법은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는
특별한 자격도 학식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배우고자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도리인 것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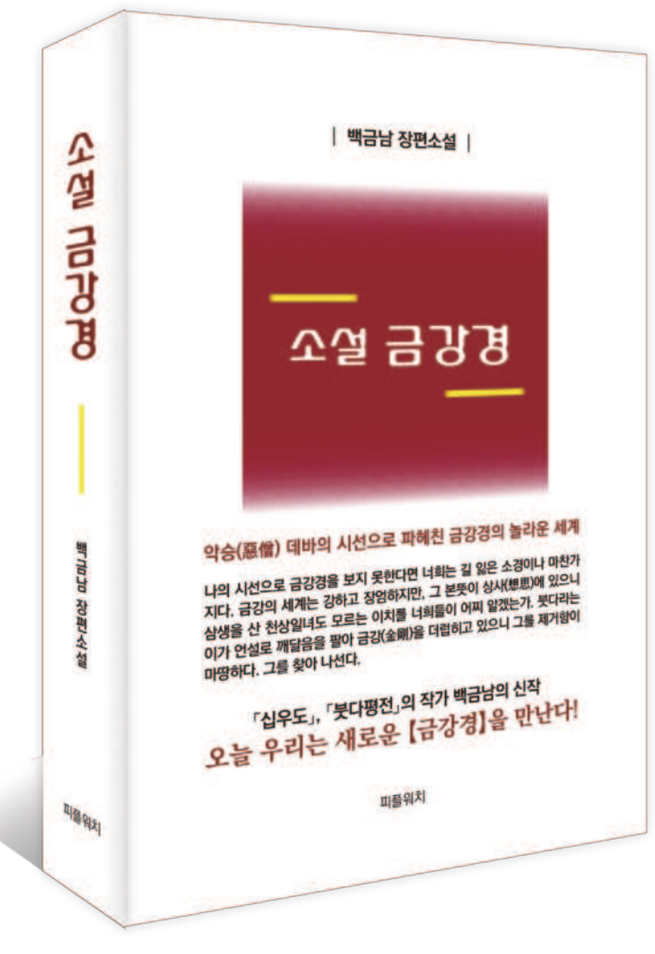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설 금강경

깨달음을 비우고 벼락처럼 깨침을 얻는다!

「십우도」, 「붓다평전」의 작가 백금남의 신작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금강경】을 만난다!

악승(惡僧) 데바의 시선으로 파헤친 금강경의 놀라운 세계

나의 시선으로 금강경을 보지 못한다면 너희는 길 잃은 소경이나 마찬가지다. 금강의 세계는 강하고 장엄하지만, 그 본뜻이 상사(想思)에 있으니 삼생을 산 천상일녀도 모르는 이치를 너희들이 어찌 알겠는가. 붓다라는 이가 언설로 깨달음을 팔아 금강(金剛)을 더럽히고 있으니 그를 제거함이 마땅하다. 그를 찾아 나선다.

저자 백금남 | 값 18,000원

피플워치 02-352-3861

천하의 지식인이여,
내게 와서 물으라
– 탄허 큰스님 이야기 –



백금남 지음
신국판 533쪽 | 피플워치 | 값 26,000원

화엄학의 종장으로서 특히 예언에 밝았던 탄허당 택성 대종사. 작가는 자신의 종명일까지 예언한 스님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왜 그가 화엄학에 그토록 몰두했는지 이해하게 된다. 수많은 그의 예언들... 그것이 허명에 의한 술(術)의 경지가 아니라 도(道)의 경지에 입각한 것임을 깨닫는다.

사람들은 오늘도 묻는다. 스님, 자신의 종명일까지 예언하셨다면서요? 종명일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갈 해, 갈 날, 갈 시'까지 예언하셨다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역사의 질곡마다 해왔던 예언들.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월악산에 달이 떠오르고, 젊은 지도자는 성냥갑 놀이를 할 터인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나의 예언에 초점을 맞추리라. 그것이 세상의 인심이다. 혼돈의 시대, 당위의 미래학을 펼칠 수밖에 없는 화엄승의 희망을 이해하기 어려울 테지만 그러나 그 인심 속에 희망이 있다. 바람 속의 꽃이 역사기 되듯이 화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리라는 희망이 있다.